SNS를 통해

스스로 이웃을 만드는 청년들 함연수





SNS를 통해 스스로 이웃을 만드는 청년들



연구책임

함연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조경학, 연구모임 '공간가치생각'

연구진

박지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조경학, 연구모임 '공간가치생각' 고하정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객원연구원, 연구모임 '공간가치생각'

목차

01	연구 개요	— 1
	1_연구 배경 및 목적	1
	2_연구 질문 및 방법	4
	3_연구 분석의 틀	12
02	관련 이론 고찰	 14
	1_이웃과 동네	14
	2_청년들의 이웃 관계	17
	1_이웃과 동네 2_청년들의 이웃 관계 3_SNS와 대면 관계 연구	18
03	1인 기구 청년에게 '이웃'은요	20
	1_그들은 누구이며, 어디에 사는가	20
	2_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의 만남 추진 과정 살펴보기	25
	3_청년들의 지역 만남을 읽어내기	33
	4_그들과의 만남을 기대한다	49
	5_청년이 비라보는 '이웃', 새롭게 정의하기	56
	6_소결	65
04	. 청년에게 필요한 '지역 관계' 시업은	— 68
	1_지역 청년들을 위한 '마을 정책' 현황	68
	2_단기적 대안	74
	3_중장기적 대안	77
	4 <u></u> <u>4</u> <u>4</u> <u>4</u>	81
05	. 결론	— 82
찬 ⁻	고문헌	— 8 4

표 목차

[표 1] 국내·외 청년지표	5
[표 2] 청년 주요 정책별 대상 연령	5
[표 3] 연구 대상지 선정 기준	6
[표 4] 연구 참여자 개요	10
[표 5] 인터뷰 항목	11
[표 6] 연구 참여자 인적사항	21
[표 5] 인터뷰 항목 [표 6] 연구 참여자 인적사항 [표 7] 만나는 장소 선정 기준 [표 8] 일회성 만남의 특성 [표 9] 다회성 만남의 특성	32
[표 8] 일화성 만남의 특성	35
[표 9] 다회성 만남의 특성	39
[표 10]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관계 이슈	48
[표 11] 당근마켓을 통해 동네 이웃을 만나는 이유	50
[표 12] Covid-19 팬데믹 전후 청년의 사회관계망 변화	52
[표 13] Covid-19 팬데믹 전후 지역 만남에의 적극성과 빈도 변화	52
[표 14] 인접한 이웃과 얼마나 소통하시나요?	56
[표 15] 당근만남이 이웃이 될 수 있을까?	62
[표 16] 이웃에게 도움을 주거나 받았던 경험, 희망 사항	63
[표 17] 청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이웃'	64
[표 18] '우리 동네'라고 인식하는 공간적 범위	64

그림 목차

[그림 1] 온라인 플랫폼으로 형성되는 도시·동네 속의 새로운 관계 개념도	3
[그림 2] 당근마켓 플랫폼의 주요 구성과 본 연구 대상자의 접촉 경로	8
[그림 3] 당근마켓 플랫폼의 연혁과 월간 이용자 수(MAU)	9
[그림 4] 본 연구를 위한 분석의 틀	13
[그림 5] 관악구를 묘사하는 청년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만든 워드클라우드	24
[그림 6]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 동네생활 탭	25
[그림 7] 온라인상에서 대면 만남을 위한 사람을 선정하는 과정	33
[그림 8] 관계별 만남 특성	45
[그림 9] 친밀도와 근접성을 축으로 한 관계 개념도 (이웃/친구/목적모임)	65
[그림 10] 관악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들의 이웃 만들기 개념도	67
[그림 11] 무중력지대 네트워킹 포스터	69

01 연구 개요

1_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ICT기반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와 관계 양상 변화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산업구조와 패러다임을 맞이하기 위한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화두를 던진 Schwab(2016)과 유영성(2014) 등은 초연결성이 우리의 행동 양식뿐 아니라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Joshua Meyrowitz는 '미디어 진화가 물리적 장소와 사회적 장소 관계를 재구조화하고, 사회적 정보를 주고받는 법을 변화시켜, 사회 질서의 논리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즉, 한 세대 안에서 도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몸소 겪었을 뿐 아니라, 초연결 세상을통해 공간 질서를 재구조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눈에 보이는 도시 환경과 보이지 않는네트워크 사회에 동시다발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평생에 걸쳐 맺고 살아가는 인간관계 또한 변화가 생긴다.

다양한 관계 중에서 지역과 주거 환경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관계는 아마도 '이웃'일 것이다. 핏줄로 연결된 가족이나 친척은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서로 간에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웃은 각자가 어디에 터를 잡고, 어느 기간 동안 거주하는가에 따라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과 만남의 방식, 서로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달라진다. 하지만, 과거의 이웃과 달리 현대의 이웃은 그저 오가며 낯익은 이방인일 뿐 서로 소통 또는 친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웃이라 불리는지역 기반의 대면 관계는 이 시대에 효용을 잃어버린 것일까?

(2) 청년의 이웃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현대 도시에서는 고정된 땅을 기반으로 생활하던 과거 전통사회에 비해 직장 및 주거지의 이동이 잦고, 서로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지식, 유대감이 약한 편이다. 전통적인 품앗이 문화가 사라진 지금에 와서는 더더욱 서로를 필요로 할 만한 접점이 없는 관계이기도 하다.

2015년 '서울시민 마을생활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58%는 동네 이웃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고 지내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이웃과 공동체의 상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특히 청년들의 이웃 관계는 언급되지 않고, 공유·대안주거, 신앙 등과 관련한 키워드(한효주, 2020; 우동준, 2017) 정도를 찾아볼 수 있다. 즉 주거지에서 주변과의 관계 맺기가 가시화되지 않는 집단 중 하나가 청년인 것이다. 나이가 어릴수록 외로움의 정도가 크게 나타난다는 Loneliness Experiment Survey(영국 공영방송 BBC, 2018)의 결과와 맞물려 우리는 청년들의 관계 맺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 독거사와 같은 끔찍한 사건을 예방하는 등 사회안전망의 확보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관계는 이웃이다.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지역을 봉쇄시키기도 하면서 필요시 물리적으로 가까운 이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텃밭 만들기 사업이나, 정원사업,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 등 지역 공동체 형성 및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3)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지역민 소통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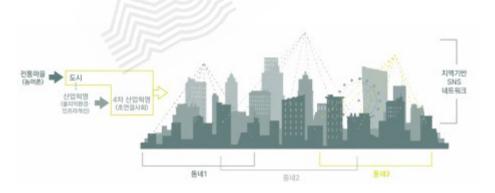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 유대의 약화라는 진단들은 대부분 과거 공동체 위주의 전통적 생활양식과 도시성의 특징을 비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우리 삶에 익숙하게 포진해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관계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은 중고 물품 거래를 주목적으로 하지만 동네 단위의 정보 교류와 만남을 주선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청년층 중심의 활발한 거래와 이웃과의 소통·만남은 도시민에게 잠재되어있지만 표출되지 못했던이웃 혹은 동네 친구에 대한 욕구를 건드렸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기능을 오프라인 만남을 주선하는 연결고리이자, 관계 여부를 개인이 선택하는 자유성의 욕구가 반영된 시스템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일반적 관념과 통계 뒤에서

이웃과의 관계 형성과 지역 공동체에 대한 욕구가 존재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새로운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이웃 관계와 지역공동체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전통적인 이웃 관계의 부재를 대체하려는 노력이 청년들의 SNS의 사용과 맞물려 어떻게 발현되는지, SNS를 통해 지역 내 오프라인 만남을 경험한 청년은 '이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과 친구 및 연인, 직장 동료 등 모든 관계는 다른 관계가 대체할 수 없는 특수한 영역을 확보한다. 그렇다면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만나는 지역 내의 사람과도 그만의 역할과 특수한 양상을 빚어낼 것이다. 현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으로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웃 관계에 대한 부진한 성적과 통계 자료를 공허하게 반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단 몇 가닥의 방향성이라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장중심성을 바탕으로 한 타당한 비교가 필요하다(황익주, 2016). 이웃 관계가 누구로부터, 왜 발생하고,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미시적이고 인류학적이기도 한 접근을 토대로 현장의 진짜 면모를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 연구자 작성

[그림 1] 온라인 플랫폼으로 형성되는 도시·동네 속의 새로운 관계 개념도

2 연구 질문 및 방법

1) 연구 질문

청년들이 SNS를 통해 지역 내 이웃을 만든다는 가정하에, 전통적 이웃 관계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온라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SNS를 통해 만든 지역 기반 사회적 관계를 이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 SNS를 통한 지역 만남이 청년들의 이웃 관계 형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 청년 1인 가구에게는 이웃이 어떤 의미를 지니며, 해당 관계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2) 연구 대상 및 대상지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기준 연령인 만 19-39세의 청년 1인 가구이다. 1인 가구 증가는 유럽 국가나 전 세계 대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국내에서도 지난 20년간 가장 빠르게 증가해온 가구 유형이다.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율은 2015년 대비 2020년 기준 약 25%이며, 그중에서도 20대와 30대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한다(통계청, 2021, 경기연구원 2021 보고서). '혼밥', '혼술'뿐 아니라 '청년고독사'와 같은 단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는 점에서 현대 대도시의 사회·인구 구조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새롭게 부상하는 청년 1인 가구의 관계 취약성을 고려하여 본연구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청년들의 이웃 관계를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최근 COVID-19 팬데믹과 같은 재난 시기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인접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체감한 것과도 연관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청년을 정의하는 합의된 연령 기준은 없다. 청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현대에 들어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그에 따른 대책들은 정밀한 검토 없이 우후 죽순 생겨났다. 또한 교육 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늦은 사회진출, 급속한 고령화, 결혼 연령의 상승과 맞물려 청년 연령이 점차 확대되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비교적 넓은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청 년기본조례의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1] 국내·외 청년지표

구분	내용	대상(용어)	연령
	청년기본법	청년	19~34세 이하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	청년	만 19~39세 이하
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	15~29세 이하
	일본 자녀·젊은이 육성지원추진법	젊은이	규정없음 (30대포함)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	아동/청소년/청년	18~27세 이하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청년 (대한민국 거주 가구원)	만 18~34세 이하
조사	2030 청년백서(2012)	청년	만 19~34세 이하
	유럽연합(EU) 청년보장 제도	니트족 (NEET: Not in Employmnet, Education or Training)	15~24세 이하 (일부 30세 확대)
세대 구분	MZ(Millennials and Gen Z)서대	밀레니얼(M): 1980년 초반 ~ 1995년생 Z세대: 1995년에서 2003년생	만 19~40대 초반

[표 2] 청년 주요 정책별 대상 연령

출처 : 김기헌 외(2016)의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표 2] 청년 주요 정책별 대상 연령							
주요 정책	대상 연령						
청년기본법 제정안	19 ~ 39세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19 ~ 29세						
고용부 청년 구직수당 지급	18 ~ 34세						
공공기관 의무고용 대상 청년	15 ~ 34세						
창업자금 지원 청년	39세 이하						
청년고 용촉 진특별법	15 ~ 29세						
통계청 청년실업 통계기준	15 ~ 29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청년 기준	15 ~ 24세(29세)						

(2) 연구 대상지

연구 대상지는 1인 가구 비율이 60.0%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1위를 차지하는 관악구를 중심으로 한다. 관악구의 21개 지역 중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청룡동, 신림동, 행운동, 서원동, 인헌동, 대학동, 은천동, 서림동, 신사동, 낙성대동 10군데와 면적 대비 높은 청년 인구 밀도를 보이는 중앙동을 추가하여 총 11개의 지역구를 선정하였다.

[표 3] 연구 대상지 선정 기준

번호	구/동	만20-39세 청년 인구 (명)	면적 (km²)	인구밀도 (명/km²)	연구 대상지
1	청룡동	18,604	1.18	15,766	
2	신림동	14,644	0.54	27,119	
3	행운동	13,538	0.72	18,803	
4	서원동	11,051	0.65	17,002	
5	인헌동	10,792	1.08	9,993	연구 대상지
6	대학동	10,557	8.3	1,272	인구 대경시
7	은천동	10,335	0.78	13,250	
8	서림동	9,957	0.99	10,058	
9	신사동	9,919	0.64	15,498	
10	낙성대동	9,144	2.27	4,028	
11	미성동	8,934	1.38	6,474	
12	보라매동	8,807	0.76	11,588	비대상지
13	신원동	7,606	0.55	13,829	(B
14	중앙동	7,546	0.39	19,349	연구 대상지
15	남현동	7,531	3.27	2,303	
16	난곡동	7,498	0.96	7,810	
17	조원동	7,325	0.67	10,933	
18	성현동	7,266	0.68	10,685	비대상지
19	삼성동	4,754	2.66	1,787	
20	청림동	4,177	0.3	13,923	
21	난향동	3,394	0.8	4,243	
	관악구	193,379	-	_	

출처: 2022년 3월 관악구 거주자 1~64세의 연령별 인구 현황, 서울특별시 관악구

3) 연구 방법

(1) 문헌 조사 및 선행 연구

선행연구로 이웃 및 동네의 정의와 유사 개념을 고찰하고, 청년이라는 생애 주기와 이웃 관계 특성을 살펴본다. 또한 SNS와 대면 관계의 상관성에 관한 기존의 이론을 정리함으로써 연구 대상인 '청년'과 그들의 삶에 깊게 침투해 있는 '온라인 세계'가 현실의 거주

공간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바탕으로 삼는다. 이와 더불어 국내의 여러 조사 보고서를 통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대상 연령을 정리한다. 이로써 본 연구 현안의 주안점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심층 인터뷰

① 연구 참여자 모집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SNS, '당근마켓'

당근마켓은 '이웃'이라는 관계성과 '지역, 동네'라는 공간적 배경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다. 본 연구에서는 당근마켓이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의 완결성이나 독창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기반의 대면 활동을 가능하게 한 네트워크 플랫폼이라는 도구적 관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동네에 특화된 커뮤니티로 '동네 소셜미디어'라 불리기도 하는 당근마켓은 동네 이웃을 대상으로 자신이 팔고자하는 중고 물품을 거래할 수 있게 연결한다. 가까운 역이나 중간 지점에서 만나 직거래형식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경우가 많으며, 택배로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입금 후에 물건을 발송하는 방식이 많아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다.

해당 플랫폼의 서비스는 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 물리적 거리, 즉 개인의 동네 범위를 반경 기본 6km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철칙을 지키기 위해 약 한 달에 한 번씩 GPS 기반의 동네 인증을 해야 한다. 당근마켓이 서비스 범위를 특정 지역에 한정한 이유는 거래의 편리성을 비롯해 동질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신뢰성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믿고 거래하면 소위 '네고(Negotiation)'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부대 효과까지 고려해 동네 개념에 천착했으며, 사용자의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 이상에 비교적 많이 포진해 있다.

"현재 지역 커뮤니티 중심은 '맘 카페'아닌가. 우리는 맘 카페가 지역 내에서 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도시화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동네를 중심으로 생활한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되고자 하는 수요는 언제나 있다." (당근마켓 김재현 대표 인터뷰 중)

'동네생활'이라는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동네질문', '동네소식', '분실/실종', '해주세요', '교육/학원' 등의 관심 주제에 맞는 이웃의 게시글을 볼 수도 있다. 업로드 되는 글의 내용은 동네 단골가게 관련 소식이나 정보 문의, 자신의 일상 공유, 현재 감정 상태를 올려 공감을 받는 등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동네에서의 만남을 추진하고자 하는 게시글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은 22살 여학생이 함께 카페도

가고 쇼핑도 할 또래 여자친구를 구하거나, 코인노래방에 같이 갈 사람을 찾기도 한다. 혼밥이 지겨워 같이 저녁을 먹었으면 하는 사람부터 함께 동네 밤 산책을 나설 주민을 구하기도 한다. 동네 이웃이자 친구가 될 수 있는 관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당근마켓은 일상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매개로 사람에 초점을 맞춘 어플리케이션으로 볼 수 있다(김재영, 2021).



출처 : 연구자 작성

[그림 2] 당근마켓 플랫폼의 주요 구성과 본 연구 대상자의 접촉 경로

1980년대 초반에서 2003년 출생자를 포함하는 'MZ세대¹⁾'는 온라인을 통해 타인과 소통을 즐기고 직접경험보다 간접경험을 선호하며 개인의 삶과 행복을 중시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보고한다. 따라서 당근마켓 플랫폼을 지역 내 이웃 관계의 새로운 양상을 구축할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은 사용하는 지역민들조차도 알지 못했던 지역 내 커뮤니티에 대한 욕구와 맞물려 활발한 이용을 보이고 있다. 본래 동네에서 거래를 위주로 하던 기능

 ^{1) 1995}년을 기준으로 1980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사람을 밀레니얼(M)세대라고 부르고, 1995년에서 2003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Z세대라고 한다.

이 점차 확대·세분화되었으며, 각 탭의 인터페이스 구성 또한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 2022년 3월까지만 해도 없던 '같이사요(공동구매)', '같이해요(모임)'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출처 : 당근마켓 제공 자료를 연구자 재가공

[그림 3] 당근마켓 플랫폼의 연혁과 월간 이용자 수(MAU)

② 연구 참여자 선정 및 개요

당근마켓의 '동네 소식'과 '당근 알바' 게시판에 구체적인 연구 목적과 참여자 거주 동네 기준을 밝히고 일정 금액의 사례를 하는 조건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인터뷰에 응하고자하는 사람들의 개별 채팅 과정에서 당근마켓을 통해 대면 만남을 진행한 횟수가 3~5회이상 되는 주민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연구 참여자는 여자 10명 남자 11명으로 총 21명이다. 평균 연령은 29.6 세로 본 연구에서 청년 대상연령으로 정의한 19~39세의 평균 연령이며, 20세부터 39세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관악구에 거주한 기간 역시 출생부터 장기간 거주한 참여자부터 입시, 진학, 직장 등의 이유로 관악구에 전입한 청년 등 다양하다. 직업군의 경우직장인(8명)으로 취직 상태인 참여자 이외에도 학생(4명), 단기노동직(아르바이트 2명),무직(8명)으로 구분된다. 무직의 경우 이직·취업 및 유학 준비, 수험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약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청년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 연구 참여자 개요

번호	이름	출생년도	성별	직업	행정동	거주기간
	- U - A	1000	<u>م</u>	=110	Hall	(년.개월)
1	청년 A	1999	여	학생	봉천동	1.1
2	청년 B	1983	여	무직	인헌동	4.6
3	청년 C	1992	여	직장인	봉천동	26.0
4	청년 D	1986	여	프리랜서	봉천동	11.0
5	청년 E	1994	남	공무원	서림동	3.0
6	청년 F	2002	여	무직 (유학준비생)	청룡동	2.5
7	청년 G	1987	남	무직 (공시생)	서림동	11.0
8	청년 H	1992	여	직장인	청룡동	5.0
9	청년 I	1991	여	강사	낙성대동	4.0
10	청년 J	1992	여	무직 (이직 준비)	행운동	1.0
11	청년 K	1994	남	의어바되어	서원동	0.5
12	청년 L	1992	남	무직 (이직 준비)	신림동	8.0
13	청년 M	1992	남	직장인	중앙동	7.0
14	청년 N	1985	남	자영업	신원동	7.0
15	청년 O	1990	남	직장인	삼성동	20.0
16	청년 P	1995	Ф	학생	낙성대동	3.0
17	청년 Q	1994	남	의어바되0	봉천동	5.0
18	청년 R	2000	여	무직 (취업 준비)	대학동	1.0
19	청년 S	1986	남	무직 (수험생/과외교사)	신림동/대학동	5.4
20	청년 T	1996	남	학생	중앙동	0.5
21	청년 U	1995	남	무직 (고시생)	대학동	0.8
평균		29.6 세	여(10) 남(11)	학생(4) 직업인(8) 이르바이트(2) 무직(8)	-	7.4년

③ 인터뷰 항목

청년들의 이웃과 동네에 대한 인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연구자가 정리한 아래 7가지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반 구조화(semi-structured)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거주유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일반사항부터 당근마켓 서비스 관련 인식, 관계 형성을 위한

온라인 활동, 오프라인 만남의 특성과 관계 형성 과정, 코로나 상황에서의 만남, 청년이 생각하는 이웃 관계, 지역구 단위의 청년정책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5] 인터뷰 항목

 항목	버호	내용
07		
0.00.00	1	평소에 자주 연락하는 사람의 수와 빈도
일반사항	2	만나는 시람의 주기 및 횟수 (가족 및 이성친구 포함)
	3	주거의 형태(원룸, 다가구 등) 및 거주기간
	1	일반적인 소개팅 혹은 친구 만들기 플랫폼과 지역 기반 플랫폼(당근미켓)을 통한 관계의 차이는?
당근마켓 관련 인식	2	목적 중심의 만남과 다른 점은? (운동 동호회 등)
한민 한국	3	당근마켓을 통한 동네 친구가 학교 동창 및 회사 동료와 다르다고 느끼는 점은? (긍정적 /부정적 측면)
	1	당근마켓의 '동네생활' 페이지를 확인하는 주기
온라인	2	만남을 추진하는 방식 : 적극적으로 사람을 모으는 게시글 업로드, 댓글 참여 등
활동	3	만날 사람을 거르게나 평가하는 기준 : 나이, 성별, 관심사, 글을 쓰는 방식, 주거지의 거리 등
	1	만남의 목적 및 행태: 운동, 대화, 식사, 공부, 쇼핑, 고민상담 등
	2	만남의 주기와 규모 (지속성 : 일화성/다화성)
	3	만남을 통해 본인이 기대하는 것은? (외로움의 해소, 혼밥 탈출, 동네친구 만들기, 시간 때우기 등)/ 만남의 주된 감정(외로움, 심심함, 호기심 등)
	4	만나는 공간의 선정 기준 : 동네 위주로 만남을 가자는가, 만남의 공간 영역 확대 여부
	5	lce breaking은 어떻게? (MBTI, 인적사항, 등등)
오프라인	6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구사하는 전략 (그룹 채팅방 개설, 정모, 새로운 취미생활 만들기 등)
활동	7	사생활(한계선)을 넘는다고 느낄 때 대처법
	8	관계를 단절하고자 할 때의 전략과 이유 (소통 불가, 공통의 관심사 부족,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등)
	9	만남을 지속하는 대상의 특징과 이유 : 비슷한 연령대, 성향, 관심사, 생활 패턴, 거주지 간의 거리 등 사회적 관계의 거리와 개인의 사생활 관련
	10	익명성/시생활을 오픈하는 정도의 범위. 지키고자 하는 한계선, 개인 거주지의 노출 및 개방 여부
	11	(주기적인 만남에서 한 단계 나아가)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고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 여 지역기반 공동체로 확장될 기능성이 있는가?

항목	번호	썡
코로나	1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이웃 관계의 규모 및 만남의 빈도에 차이가 생겼는가?
	1	내가 생각하는/이상적인 이웃의 개념과 조건
	2	현대사회에서 이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가?
이웃관계	3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시 해결하는데 가까이 사는 이웃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 없다면 어떤 것을 도움받고자 하는가?
	4	거주지 내에서 범죄 or 안전에 위협을 느낀 경험
	5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과 SNS를 통해 만난 이웃 간의 차이점
	6	취향 중심의 공동체 및 전통적 이웃 관계와의 차별성과 한계
	1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관련 정책 인지하고 참여하고 있는가?
청녀정책	2	지역구 내 청년공간(공간대여, 스터디룸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가? 이용하고 있는가?
0 <u>00</u>	3	청년 관련 정책 또는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면/이용하지 않는다면 이유와 개선 방안
	4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동네를 더 알아가고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3_연구 분	분석의	주는가? 틀

3 연구 분석의 틀

1인 가구 청년들의 이웃 관계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의 틀을 설정한다.

[03-2] 청년들이 온라인을 통해 지역 내 대면 만남을 예상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접하고 탐색하는지 확인하다.

[03-3/4] 만남을 확정지은 청년들이 어디서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고, 얼마나 만남의 지속성을 갖는지, 지속성을 갖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기술 및 정리하는 과정을 갖는 다. 당근만남의 과정을 정리하면서 해당 관계가 친구 및 직장동료, 동호회 모임에서 만 난 사람과 어떤 차별성을 지니는지 인터뷰를 기반으로 연구자가 해석 및 비교하는 작업 을 거친다. 관계의 비교를 통해 연구의 핵심인 '당근만남의 역할 및 가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후 당근만남을 가진 청년들이 이웃과 동네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하고, 결과가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해석한다.

[03-5] 연구의 핵심 가설인 '청년들의 이웃 관계'를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당근만남 이 이웃이 될 수 있는지를 인터뷰 기반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인접한 이웃에게서 느끼는 감정과 청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웃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04] 앞서 살펴본 분석을 토대로 관악구 청년 1인 가구들의 지역 내 관계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한다.



[그림 4] 본 연구를 위한 분석의 틀

02 관련 이론 고찰

1_이웃과 동네

1) '이웃'의 정의와 유사 개념 고찰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이웃'은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붙어있거나, 가까이 사는 집으로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살면서 알게 되는 사람들이다. 과거 전통마을이나 초기 도시화 과정에서 '이웃사촌'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곤 했는데, '사촌 형제나 다를 바 없이 가까운 이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웃사촌의 관계가 갖는 중요성을 표현한 오랜 속 담들을 통해서도 과거 이웃의 존재가 갖는 위상을 엿볼 수 있다. 장수명(2014)은 이웃을 특정한 지리적·물리적 공간에 살고 있는 사회경제적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언급된 Parker(Sampson et al. 2003: 445)는 연속적인 여러 위계의 공동체 속에 위치한 생태학적 단위로 정의하면서, 이웃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 개인의 건강이나 교육적 성취, 노동의 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웃효과'로 표현하였다. 비슷한 사례로 Christakis와 Fowler가 진행한 연구(2008)에 의하면 1.6km 안에 사는 친구가 행복하면, 행복한 친구를 둔 사람도 덩달아 행복할 확률이 약 25% 증가한다. 반대로 1.6km 밖에 사는 친구의 행복은 아무런 효과도 미치지 못했다. 즉 서로의 감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물리적 거리가 중요하며, 가까운 이웃이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웃이 지리적 인접성을 중심으로 관계를 설명하는 일상적 용어라면,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 공동체 혹은 근린(Neighborhood)을 들 수 있다. 근린(近鄰)은 '가까운 이웃'이라는 뜻으로, 이웃을 뜻하는 鄰(린)을 파자해 보면 마을의 뜻 글자 『(邑, 우부방)과 소리 글자인 粦(린)을 합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계성을 의미하면서도 '마을'이라는 공간적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ernard(1973, 1958; 정유

진, 2014: 6-7 재인용)에 의하면 Community(공동체)는 장소를 초월하는 공통분모를 지닌 집단이고, The Community(지역사회)는 지리적 경계를 가진 장소적 개념, Neighborhood(근린)은 일정한 지역에서 동질성을 지닌 주민들 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집단으로서 공통된 정체성을 지닌다고 정의하였다. 천현숙(2001)은 지역사회로서의 커뮤니티는 해체되고 있는 반면 공동체로서의 커뮤니티가 지니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각 개념이 내포하는 의미와 계층을 규정하는 관점에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유진(2014)은 공간의 의미가 강한 '동네'와, 심리적 친밀도의 의미가 강한 '이웃'의 개념은 이웃 관계가 형성되는 물리적 공간인 근린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반면 Chaskin(1997)는 Urban Village(동네)가 구성원과 몰입도의 측면에서 더욱 포괄적이고 열린체계인 Neighborhood(근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정유진, 2014).

전통적 공동체와 대비되는 '도시에서의 공동체' 특성을 논의한 많은 학자들은 부정적 시각뿐 아니라 가능성의 면모 또한 발견하였다. Tönnies와 Wirth는 근린공동체를 '상실된 공동체'라고 평가하며 느슨하며 비감정적이고 일시적, 파편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까닭에 연대와 영역적 응집력에 기초했던 기존 사회관계를 대체한다고 보았다(질발렌타인, 2009:153; 정유진, 2014;8 재인용). 박선희(2014)는 심리적 유대감이나 공동의식을 가지고 마을의 일을 주체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생활공동체로 이해하였고, 박선경외(2004) 또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함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현대사회의 근린커뮤니티는 전통적 공동체보다 유대가 약하고 느슨하지만 이익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적 특성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 다양한면모를 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동네·근린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개념 변화

이웃과 연관된 공간적 범위를 표현하는 '동네'의 洞자를 살펴보면 과거 전통마을에서의 동네는 '같은 수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수계와 같은 지형적 특질과는 무관하게 밀집된 주거지가 형성되어 명확하게 동네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개인이 동네를 인식하는 인지적범위 또한 거주기간이나 경험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누군가는 행정동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자는 아파트 단지를, 또는 주로 방문하는 상업시설을 포함한범위를 의미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SNS 일상화 이후 동

네를 인지하는 영역이 개인의 온라인 소통 범위를 기반으로 재편되었을 수도 있다. 이웃효과를 밝히기 위해 '이웃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한 연구에서도 기준 설정에 대 한 모호함과 공개 데이터 수급의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동네의 특성이나 사회적 유대의 수준을 변수화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Sampson et al. 1997; 김희윤 외 2010; 이화 용 2016; 김이현 외, 2020 재인용). 동네 및 근린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합의의 어 려움과 모호성을 뒤로 하고 연구자들은 각자의 기준으로 범위를 설정한다. 김이현과 김지범, 강정한(2020)의 연구에서는 이웃관계의 배경이 되는 지역 단위로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법률 행위의 단위인 법정동보다 지역의 행정편의 와 관리 단위가 되는 행정동이 인구 및 지역 특성을 더 잘 반영하는 단위라고 보았 기 때문이다. 조영재 외(2013)에 의하면 마을(village)은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지닌 공동체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Guterman(1969: 497)은 도 시화 지역과 교외지역의 인구 규모에 따른 관계의 친밀도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 12 만 명 이하, 15~25만 명, 1400만 명의 인구 규모를 설정하고 각각에 대한 친밀도 수준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문하였다. 설문 결과 인구가 적을수록 높은 친밀도를 느 낀다는 비율이 높고, 인구가 많아질수록 친밀도 지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진, 2014).

본 연구에서 이웃의 사회적 만남을 주선하는 지역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선정한 '당근마켓'은 행정동이나 인구 기준으로 동네를 규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한 반경 6km의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김재영(2021)은 이러한 단위 공간을 '하이퍼로컬'로 지칭한다. 행정구역 단위인 동은 2021년 기준 2,104개가 있으나, 당근마켓은 2021년 초 기준으로 전국 6,577개 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즉, 행정구역상의 동 단위보다 훨씬 더 세밀한 범위로 구역을 나눈 것이다(김재영, 2021). 1980년대 말 이후 부각된 하이퍼로컬은 세계화 물결과 더불어 로컬(local)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의 측면에서는 아주 작은 규모의 동네나 마을, 공동체와 관련한 세세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기도한다(김송희, 유종원, 2012). 이처럼 이웃관계의 범위를 공간적, 지역적으로 범주화하려는 노력은 기술의 발달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물려 그 기준이 변화무쌍하게 변화하다.

2 청년들의 이웃 관계

1) 생애주기에 따른 이웃 관계 특성

생애주기(Life Cycle)는 유아기, 아동기, 사춘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와 같이 생애의 전 과정에서 전후가 충분히 구별되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한다. Duvall(1957)에 의하면 가족의 형성부터 해체 시까지 생활을 통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단계들이다. 발달 단계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생활 패턴과 각자의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거지에 인접한 사회적 관계인 이웃과의 관계 양상 또한 영향을 받게 된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자녀의 발달에 따라 부모 자녀 간의 상호의존성이 변화되는 것과 관련하여 특히 여성이 외부관계에 투자하는 양과 양상이 변화한다는 의견이 있다(Ishii-Huntz 외, 1989; 원효종, 1997; 정유진, 2014 재인용).

생애주기와 가족 구성원의 발달 단계에 따른 이웃과의 사회적 교류 양상을 연구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웃과의 관계 만족도가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박병훈과 정의철(2021)에 의하면 가구 확대기와 해체기에 속한 가구들이 이웃과의 관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江上港(1990)은 아파트단지 근린관계연구에서 근린교제를 활발히 하는 계층이 자녀 양육기에서 교육기를 지내는 가구의 재택주부라고 밝혔다(천현숙, 2001 재인용). 이는 자녀의 교육 및 다양한 활동과 관련한 모임을 통해 근린의 주부들과 사회적 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년 여성의 건강과 사회적 지지의 모형을 탐색한 서연옥(1995)은 자녀의 사회경제적 독립하는 시기에 부모는 가족 외부의 관계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신체적 기능의 저하와 배우자 또는 친구와의 사별, 사회적 역할의 상실, 경제적 자원의 고갈 등 부정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이웃 및 친구와의 유대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사회적 지지는 우울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사회관계가 가족관계에 한정된 경우보다 지역사회와 함께 연계된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분석된 많은 연구들이 있다(박경숙, 2000; 최용민 외, 2003; Giles et al., 2007; 오영은 외, 2013).

2) 청년들의 이웃 관계

대체로 청년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고용과 주거, 결혼, 건강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지역 공동체나 이웃 관계를 주목한 연구가 부재하다는 점은 해당 관계가 거의 없거나 논의할 만큼의 우선순위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 고독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 현시점에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외에 근거리에 거주하는 이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청년이 맞이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크고 작은 관계와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없는 안전망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 거주 1인 가구를 관통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다(변미리, 2015). 청년 1인 가구는 청년이라는 불완전한 시기에 맞이하는 어려움과 1인 가구가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함께 떠안고 있다.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를 연구한 노혜진(2018)에 의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다른 유형의 가구 대비 55~60% 수준이다. 또한 여성의 경우 전문직보다서비스 판매직 또는 관리 전문직, 기능장치 조립직에 있을 때 사회적 관계 시간의 감소폭이 크다.

청년의 이웃 관계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존의 다른 분야에서 청년 기의 이행(transition)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김태완 등, 2017; 금재호, 2013; 윤명수 등, 2017; 김영미, 2016; 노혜진, 2018 재인용)은 본 연구에서 참고할만한 생애 단계적 특성이라고 생각된다.

3 SNS와 대면 관계 연구

지금까지는 지리적 영역을 기반으로 한 동네 및 이웃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앞서 Bernard(1973)가 Community를 정의했듯이 지리적 맥락을 초월한 공동의, 통일성을 지닌 집단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정보사회학자이자 커뮤니케이션학자로 잘 알려진 Manuel Castells(2004, 2009)은 기존의 고전적 공동체 이론의 공간 결정론적 시각에서 벗어나 가상공간에서의 네트워크가 공동체적 관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엿보았다(정유진, 2012). 정보시대를 네트워크 사회로 규정하며 이러한 논리가 사회 여러 분야로 확산됨에 따라 문화와 권력, 생산, 경험 등 삶의 전반 조건들이 새롭게

조정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도시사회학자였던 카스텔이 네트워크 사회를 통한 도시 구조의 변화를 예상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도 도시환경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사회의 영향관계를 주목한다. 그러나 카스텔이 정보시대의 네트워크가 지니는 사회 변혁의 가능 성 자체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지리적 인접성을 기반으로 한 이웃관계에 네트워 크가 도구로 활용됨으로써 동네와 근린 생활을 새롭게 창조해나가는 과정에 가치를 두 는 현장 중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정보사회의 태동 이후 많은 연구들이 온라인 공 동체의 새로운 사회적 교류 가능성을 타진해왔다. 최근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형성 되는 커뮤니티가 강력하게 부상함에 따라 근린보다는 네트워크에 초점을 둔 커뮤니티를 강조하거나(Wellman and Berkovitz, 1988; 천현숙, 2001 재인용), 앞으로의 관계가 온라인 세계를 중심으로 이동하게 될 것을 주목한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대면 접촉에서 오는 친밀감과 신뢰의 깊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소속감이나 지역 정체성과 같은 요소를 태동하는 데에 있어 지역성에 대한 가치를 내려놓을 수가 없을 것이다.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구분하자면, 사회적 자본의 형성 수준에 따라 사회자본 강화론(Social capital enhancing approach), 사회자본 쇠퇴론 (Social capital declining approach), 사회자본 보완론(Social capital supplement approach)으로 설명할 수 있다(송경제, 2005; 김종기 외, 2012).

이를 바탕으로 필자가 본 연구를 계획함에 있어 두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음과 같다. 사회자본과 SNS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도시민이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힘을 지지하는 가능성을 지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Hampton et al(2000)는 가상 공동체와 현실 공동체가 중첩되는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더 높으며, 인터넷 또한 다양한 관계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정유진, 2014). 구선아·장원호(2020)는 취향공동체 증가 현상연구에서 온라인 중심의 만남에서 물리적 장소에서의 만남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두고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냄으로써 서로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고, 직접적인 경험을 원하는개인의 욕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대면'이 최고의 방법인 것이다.

03 1인 가구 청년에게 '이웃'은요

1_그들은 누구이며, 어디에 사는가

1) 당근만남을 추진했던 청년들

1인 가구 청년에게 이웃이 어떤 의미인지, 지역 내에서 갖는 만남이 현시대의 새로운 이웃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에 앞서, 모임을 갖는 청년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외향성이 있는지 등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거주기간은 평균 7.4년이고, 본가가 관악구에 있는 세 명을 제외하면 평균 5년 5개월 거주하였다. 거주 유형은 다가구 원룸·투룸, 오피스텔, 아파트이다. 그중에서 원룸 거주민 12명, 투룸 4명, 오피스텔 4명, 아파트는 1명이다.

거주 동네는 봉천동 4명, 대학동 3명, 서림동·청룡동·낙성대동·중앙동은 각 2명, 인현동·행운동·서원동·신림동·신원동·삼성동은 각 1명이었다. MBTI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외향형의 성향은 12명, 내향형은 6명, 두 성향이 반반이라고 보는 사람 2명, 잘 모른다는 사람은 1명이었다²⁾. 모임은 대체로 일회성 만남과 다회성 만남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평소 사용하는 SNS 플랫폼은 당근마켓을 제외하면 인스타그램 (47.6%, 10명), 페이스북(23.8%, 5명)이 주요했고, 드물게 블로그나 티스토리(14.3%, 3명)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다.

²⁾ 외향성 기준은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16Personalities MBTI의 외/내향성 결과를 기준으로 응답한 내용임 (E: Extroversion/ I: Introversion)

9	유	[표 6] 연구 참여자 안적사항	<u>정사</u> 하											
쎭	믤0	연령(만)		양정동	거주기간	거주유형	본가	쬬	모임성격	모암주기	외량성	모음종류	8NS 이용	당근망켓 0용주기
_	⋖	23세	ਲ	청찬	1년 1개월	문 문 문	37년	학생	일 한 다 한 성	방학 매주1회	Ш	독서모임, 산책	당근마켓 인스타그램	는 하 한
2	В	3941	ਰ	인천동	4년 671월	다가 원물	경기도	무지	일화성	-		여행, 카페투어, 공연관람, 밥	당근만켓	하루 3회 이상
က	O	3041	ਲ	봉천동	56년	다가	섐울 광각	직장인	일하	봠	I/E	영어스터디, 러닝, 강0K산책	당근마켓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하루 1회 이상
4	D	34세	ਲ	청찬	11년	다. 원물	경7匠	프리랜서	일화성 다화성	ı	Ш	글쓰기, 등산, 산책, 수다	당근마켓 소모임	일주일 2~3번
2	Е	28세	ە خ	서림동	3년	다 용	왕산	년0 마 양기	일한성다현성	영어호호, 라니 (주1호)	П	맛집, 영어희화, 러닝, 일상톡, 정책모임	당근마켓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매히
9	Щ	20MI	ਲ	청룡도	2년 67階	오피스텔	썀 광각	무	일하다	산책 (주3회)	Ш	강아자산책, 영화, 자격증준비, 밥	당라켓	하루 1회 이상
7	Ŋ	35세	ەڭ	서림동	11년	- - - - - - - - - - - - - - - - - - -	I	무직 (공사생)	일 일 한 전 한 성	월8-10회	_	운동, 산책, 밥	당라켓	일주일 2~3번
∞	I	3041	ਲ	소 6년 0년	5	오피스텔	1	직정인	등 전 전 전 전	강아저산책 (주3~4호))	Ш	강아저 [단일, 산책모임	당-미켓 소모임 인스타그램 블로그	랼

당근만켓 이용주기	하 하	<u> </u>	하 교 교	마 교 교	I	1문	<u>하</u> 등
용o SNS	당마켓	양근장	RE-P첫	SET-A첫	당근마켓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RE-P첫	당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타스토리 블로그
도임종류	독서모임, 천목, 산책	스타디모임, 동갑모임	축구모임, 밥	부동산 스타디, 디자인 스타디, 공연관람, 산책	산책, 술벙, 맛집, PT, 등산, 스타디, 언어교류	배드민턴, 클라이밍, 산책	주식/부동산 재테크, 러닝, 자연증 L
오양성	_	_	Ш	Ш	Ш	_	Ш
모암주기	독서 (주1호)	스타디 (주1호) 동갑모임 (달1호)	축구 (주1호)	I	이직모임 (주1호)	I	I
모임성격	일하는	원 원 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사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일하는	일 현 전 전	원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꿃	강사	무직 (이작준비)	희 어무런0	무직 (이직 준비)	지장인	자영업	지장인
본가	지방	갂	경기도	경7도	경기도	1	ሌ 상 각
거주유형	- H - H - H - H - H - H - H - H - H - H	물날 산삼	다 왕	사 사 사	오피스텔	오피스텔	型型0
거주기간	4년	<u>=</u> 1	룂/9	8 II	8 El)년	20년
행정동	낙성대동	양 건 상	서원동	신림동	상 아 아	신원동	상성
	ਲ	ਲ	ەڭ	ەڭ	مر	ەڭ	ەرخ
연령(만)	31세	304	28세	304	304	37세	32AII
믤0	_	7	\vee		Σ	z	0
և	6	10	11	12	13	14	15

宏忠烈 08471	1	심심할 때	주 2~3회	하루 3~4호	주 2~3회	하루 2호
용IO SNS	당근1첫 인스타그램 트위터	당그 첫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RT-P첫	뜐	당라켓 인스타그램
모임종류	러닝, 카페공부, 보드게임	운동, 밥, 동배친구, 영화, 가공, 공동구매, 고노	당근왕바	식사, 술, 운동, 영어회화	동네친구, 식사, 코인노래방	7공, 술방, 산책
외향성	3/1	Ш	Ш	ı	_	Е
모암주기		ı	I	ı	I	ı
모임성격	일하	상 하 사 하 사	다한성	일 현 전 전 전 전	일하성	일화성
직업	함생	페어뮤퍼0	무직 (취업 준비)	무직 (수험생/ 과외교사)	하상	무직 (고사생)
본가	전라도	경7도	삮		I	세종시
거주유형	물용 난/1	볼늘	사건 용물	라 남 물 불	1915 1915 1915	다7구 8물
7주7만	3년	9년	뒤	5년 47耀	61/9	10개월
뺭정동	낙성대동	병 전 전	뽪	신림동/ 대학동	於 판	퍞
성별	ਲ	وخ	ਲ	ا ال	ەڭ	ەڭ
연령(만)	27세	28세	22MI	36세	26세	27세
믤0	Ь	Ò	Œ	S	⊥	n
쎭	16	17	18	19	20	21

2) 그들이 거주하는 관악구는 어떤 곳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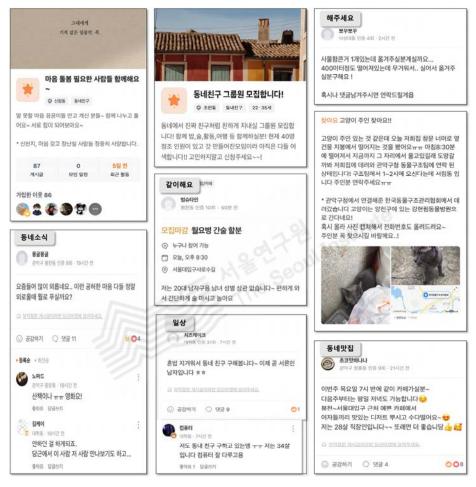
청년들에게 관악구는 거주비 부담이 적고 서울 내 이동성이 좋으며, 크고 작은 음식점과 카페가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삶의 편의성이 좋은 곳이다. 그러나 도시의 미관과 환경이 열악해 가정을 꾸리거나 오래 정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두 가지 평가가 공존하는 관악구는 청년들에게 어떤 동네일까? 관계 중심의 인터뷰로부터 동네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는지 함께 고찰해본다.



[그림 5] 관악구를 묘사하는 청년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만든 워드클라우드

2_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의 만남 추진 과정 살펴보기

본 연구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들은 당근마켓이라는 지역 기반 중고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자연스럽게 부가 서비스인 '동네생활' 탭을 탐색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림 6]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 동네생활 탭

당근마켓에 올라온 다양한 게시글에서 볼 수 있듯이 함께 술을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산책, 독서 모임 등을 할 동네 친구를 구하거나, 외롭고 힘든 마음을 달래고자 하는 모임 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만나지는 않더라도 게시글을 올려 고민을 털어놓으면 각 자가 나름대로 자신만의 해결 방안을 공유하기도 한다. 잃어버린 지갑을 찾는다는 글, 무거운 물건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글과 같이 일시적인 도움을 구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지역 내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이렇듯 각자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활동, 연령대 등을 언급하면서 게시글을 올리면 해당 내용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채팅방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만남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1) 만나게 될 사람에 대한 탐색 및 검증 과정

(1)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기

게시글을 작성하는 경우 모임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선별하고자 한다. 가까운 지역 거주·나이대·성별 등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모임에 참여시키지 않기도 한다.

'강아지 하네스(몸 줄) 필수, 강아지 중성화, 직접 강아지와 찍은 셀카, 도림천에서 5~10분이내에 사는 사람, 여성분만'이라고 조건을 달았죠. 영어 스터디 할 때는 '여자만, 특정 종교 금지, 영어로 기본 비즈니스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달았던 것 같고요. (청년 C)

특히 모임을 주도적으로 만든 경험이 많을수록 구체적인 인증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중 하나가 '5분 내로 인증하기' 미션이다.

5분 안에 직접 강아지와 찍은 셀카에다가 닉네임이랑 오늘 날짜 적어서 보내라고 했어요. 시간 내에 답장 온 사람들 하고만 만났죠. 지금 당장 달라고 하면 급하게 조작하기가 어렵 잖아요. 남자분이 강아지 산책 이후 술을 먹자는 연락이 많아서... 강아지랑 같이 있다 보 니 도망도 못 가고, 위험 상황 대처 등을 위해서 더 신경을 미리 쓰는 거죠. (청년 C)

(2) 채팅, 당근 온도, 판매 물건 내역을 통해 상대방 성향 파악하기

연령과 성별과 같은 나름의 참여자 조건이 충족된 후에도 개인의 성향을 파악하여 자신과 맞는 사람인지, 모임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계속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채팅방에 서의 말투나 태도, 대화의 느낌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외에도 참여자의 당근 온도, 판매물건 등을 통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유추해 보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된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온라인 환경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현상의 발현이라 볼 수 있다.

한두 번 만났을 때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파서 개인 신상이나 귀찮은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다가 만남을 가지면서 괜찮은 사람들끼리는 번호 교환, 단톡방을 만들자고 해요. (청년 O)

① 채팅 시의 말투, 대화 내용, 느낌

일차적으로는 채팅을 통해 상대방의 성향을 가늠해보고자 하는데 맞춤법 상태나 말투, 답장 횟수와 같은 전반적인 대화 느낌을 보고자 한다. 누군가는 맞춤법을 제대로 쓰는 사람을 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지나치게 맞춤법을 고수하는 사람이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느끼기도 한다. 즉 청년 모두를 관통하는 '보편적으로 이상적인 채팅에서의 특징'이 존재한다기보다는 각자가 원하는 만남의 방식, 대상의 성향에 대한 이미지가 있 고, 그에 맞는 상대를 채팅을 통해 1차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처음에 들어가면 당근 자체 채팅방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간 시점부터 채팅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전에 있었던 대화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대충 이 모임이 어떤 느낌으로 가겠구나- 하는 것이 보여요. (청년 P)

쓰는 어휘나 맞춤법 같은 걸 봐요. '알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걸러요.

유쾌한 말투와 목적성이 맞는 모임에 가면 유쾌한 경우가 많아요. (청년 M)

게시글 문구가 '나는 구한다. 친구를'이라고 되어있던데, 이게 (제목 센스가) 귀여워서 참여했어요. (청년 O)

반대로 자신의 성별이 '여성'임을 초반에는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딱딱한 말투를 사용하여 위장하기도 한다. 신변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이성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남성들을 거르고 싶은 경우가 그러하다.

여자인 걸 티내지 않아요. 딱딱하게 말하는 거죠. 이성만 찾는 사람들을 거르고 싶어서요. (청년 A)

당근마켓에서도 '바로 만나요'가 아니라, 오픈 카톡방이나 새로운 단톡방이 생겨요. 15명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나오는 사람은 3~4명 정도예요. 그 방에 있는 이유는… 어딘가에 소속되고는 싶고 궁금은 한데 막상 나가기에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안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오픈 채팅방에서는 닉네임이나 프로필 사진이 오픈이 안 되니까. 자신을 많이 드러내지 않아요. 이모티콘 많이 안 쓰고.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모티콘) 엄지척 이런거 절대 안 해요. (청년 B)

② 판매 이력, 당근 온도 등 평소의 일상적 모습

여타 SNS와 차별되는 당근마켓의 장점으로 개인별 '온도' 인증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간 의 판매 매너나 거래 후기, 채팅 횟수, 동네 생활 활동의 평가들이 쌓여 자신만의 온도를 만들어간다. 처음 회원가입을 하면 36.5도에서 시작하는데 매너가 좋을수록 온도가 올라간다. 청년들은 대면 만남을 갖기 전에 일차적으로 상대방의 매너 온도를 확인한다.

매너 온도나 올린 게시글을 보면 사람 만나기 전에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카카오)오픈 채팅방이나 소모임(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그런 서비스가 되어있지 않은데, (당근마켓은) 좀 더 안전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느낌적인 부분이 크긴 하죠. (청년 L)

당근 온도가 30도 이하인 사람이 아닌지 체크해요. 뻘글 쓰는 사람이나, 여자한테 찝쩍거리는 사람 있어도 차단 누르고요. (청년 G)

당근에서는 당근 온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먼저 선입견을 갖고, 그분이 거래했던 분들의 평가나 거래 물품 봐요. 그런 걸로 대략적으로 '이상한 사람은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하죠. 고질적으로 악명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대화방을 다 찔러보는 분들은 피하려고 하고요. (청년 S)

(4) 돌직구로 알아보기

반면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유추하기보다,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상대방이 예상치도 못한 솔직한 질문을 통해 반응을 확인하거나, 본인이 먼저 솔직하게 다가가 상대방의 경계심을 낮추고 신상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① 직접 물어보기

(상대편) 남자가 처음에 채팅할 때 "이상한 사람 아니시죠?"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 겁이 많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청년 A)

② 신상·직업 공개

무슨 일하는 사람이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니까. 본인도 경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굳이 경계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청년 P)

혹시 몰라서 신분증과 학생증을 들고 갔었어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려주면 (상대방이) 안심이 될까 해서요. (청년 A)

'내가 무슨 일 한다'고 이야기해요.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인상도 보고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죠. (청년 K)

2) 만나고 싶은 사람 VS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당근마켓의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타인과의 접촉은 궁극적으로 대면 만남을 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 따라서 영원히 안 볼 사람처럼 멋대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전략이다. 온라인상에서의 탐색 과정은 시간을 내서 만나는 데 시간이

아깝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과 본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마음이 공존한다. 개인별로 그 기준과 강도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묘사되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1) 성별 이슈

여성 청년들은 당근만남을 통해 이성을 만나려는 목적보다는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를 만나고 싶어했다.

당근마켓에 '성별 인증'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매번 나올 정도로 게시글에 '여성들만'이라는 조건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접근이 많다고 증언했다. 여성들의 불편해하는 태도는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남성과 대면 만남 시 안전에 위협을 받게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림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관련 뉴스 기사 등이 여성들을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한다. 일부 남성들도 다대다의 당근만 남에서 여성에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추파를 던지는 남성을 목격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여성들의 불안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딱 붙는 운동복을 입고 싶은데 남자랑은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청년 F)

게시글에 '동성 친구만 구한다'고 했지만 남자들도 연락이 와서,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남자인 경우도 있었어요. 아마도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의 추파를 받아본 적이 있어서 거부하는 것 같아요. 바퀴벌레 잡아준다, 홈트레이닝 도와준다고 하면서 꼭 성별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청년 D)

신림 쪽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엄마가 알려주셨어요. 인연이될 뻔했던 지역 내 남자들 중에 잠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모습에 실망해서 근방에서는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청년 P)

남자들이 여자를 밝히는 것 같아요. '여자들만 들어오세요' 방을 만들어도 남자들이 자꾸들어와요. (청년 B)

반면 남성의 입장에서 여자들이 없는 모임은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남성들만 있는 모임에서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고, 굳이 새로 동성 친구의 관계를 확장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자는 지속적으로 이런 모임에 참여하거나 만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지속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동성 친구는 많은데 굳이 동성을 만들어야 하나요. 남자들은 천성 적으로 귀찮음도 많고, 대화의 주제나 하는 활동도 천편일률적이고. 당근모임은 남자가 70%예요. 여자가 적극적으로 모임을 구성하거나 하지는 않아서. (청년 U)

(2) 연령대

청년들은 대체로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청년과 만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아 대로 6살 정도 나이 차이는 괜찮다며 꽤나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사람도 있고, 40 대~60대 미만으로 언급한 사람도 있었다. 그 이유로는 대화의 소재가 너무 다르고, 소위 '꼰대'처럼 자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가르치려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 중년 남성과 만나는 것을 가장 꺼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60대같이 나이 차이가 많은 아저씨들이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청년 F)

40세 넘은 사람은 만나기 싫어요. 말투에서 딱 티가 나요. 채팅에서 알게 되면 뜸을 들이다가 어쩔 수 없이 대답한 적도 있어요. (청년 B, 여, 무직)

나이 차이가 많을 때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제도 많이 달랐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은 본인만 말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비슷한 연령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청년 S)

그 사람이 뭐 파는지 보고 남녀를 체크해요. 아버지 정장 같은 거 팔고 너무 올드하신 편인 것 같다 하면 아니다 싶고, 그렇지 않으면 방 안에서 대화할 때 재미가 없다 싶으면 만나기 싫고요. 말투에서 성별이랑 나이대를 추측해요. 매니악층의 느낌이 들기도 하는 분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아지죠. (청년 Q)

(3) 태도

① 할 일 없어 보이고 정상적인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사람

청년들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에 흥미를 느끼긴 하지만,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바란다. 여러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가는 것 같거나 할 일이 없어 보이며,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은 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고시만 30년 하신 분이 나오셨어요. 이런 분 만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빨리 약속 있다고 하고 도망 나왔어요.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서초나 용인, 용산이었으면 그런 분들이 안 나왔겠죠. (청년 E)

당근마켓 온도가 평균 이하만 아니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1회성이라 해도 평균 이하는 굳이 내 시간을 내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청년 J)

채팅방에 초대되면 그 이전의 대화를 모두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한다는 남자분이 자꾸 모임만 있으면 참석하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이랑 둘이 카페에 가게 될까봐 너무 싫었어요. (청년 P)

② 종교 권유를 목적으로 나온 사람

원치 않는 포교 활동에 대한 두려움도 생각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과거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만난 사람들로부터 느꼈던 배신감이나 불쾌했던 경험, 지인의 경고를 토대로 경계하고 있었다. 온라인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 선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직접부딪혀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 또는 귀찮은 감정을 드러냈다.

도를 믿습니까, 신천지 비슷한 것들이 없지 않아 많아요. 생각보다 귀찮아서. (청년 Q)

종교 전도요. 친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포교 활동을 하게 될까봐. (청년 A)

생각해보면 신천지가(제가 만난 사람) 전체의 1/3인거예요. 지금은 남자친구가 더 걱정해요. (청년 D)

3) 만날 장소 정하기

지역 내에서 만남이 추진되기는 하지만 당근마켓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사용자 위치 기반 6km 이상의 유저들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거주지가 다소 먼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한다. 당근을 통해 거래 중심이 아니라 지역 만남을 갖고자 하는 청년들은 게시글로 연락이 닿은 청년들의 거주 동네를 미리 고려해 만남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지역도 고려를 해요. 가까운 곳을 선호하고, 시간대를 많이 봐요. 대학동은 수험생이 많았고, 신림역 부근에는 직장인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청년 S)

대면 만남이 추진되는 경우 온라인상에서 만날 장소를 정하는데 이때 가장 만나기 좋은 장소로 역 부근, 그리고 랜드마크가 지목되었다. 지하철의 경우 출구 번호만 알아도 만나는 데에 혼선이 없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역주변으로 다양한 식당과 카페, 상업 시설이 밀집해있기 때문에 보행 거리를 최소화하면서도 활동에 대한 가장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 즉 복잡한 도심 내에서 모두가 인정할만한 가장 합리적인 지점이 '지하철역'인 셈이다.

산책이나 러닝을 할 때는 대상지에서 바로 만나기도 한다. 관악구의 경우 모두가 접근 가능한 오픈스페이스가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된다.

봉천역 - 서울대입구 - 봉천역 대로변 이렇게 걸었던 것 같아요. 공원이랄게 딱히 없어서. 저녁 8시에서 1시간 정도요. 그 안쪽은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산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걷기 좋은 대로변으로 걸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고려해서 동선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청년 A)

서울대입구역 점핑 지점은 사람이 너무 많고, 쑥고개 쪽은 경사지라서 사람 없는 봉천역 쪽으로 1년 넘게 다녔어요. (청년 H)

대부분 도림천이나 보라매 공원, 낙성대 공원에서 산책과 리닝 및 간단한 운동을 한다고 말하였다. 때로는 당근마켓을 통해 만난 친구와 산책을 하면서 혼자서는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장소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제가 길치라 아는 길만 다녀요. 그런데 확실히 당근 친구들 만나면서 많이 다니게 된 것 같아요. 10년 살면서 청룡산이나 서울대 운동장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같이 산책하고 등 산하면서 처음 가봤던 것 같아요. (청년 D)

[표 기] 만나는 장소 선정 기준

번호	장소	0유
1	지하철역 부근 (8)	 거리감에 있어 '공평한 느낌'을 줌 설명하고 만나기가 편리함 모두 다른 곳에 살 경우에는 역 근처가 좋음, 접근성 좋음 주변에 먹을 곳이 많음 신림역, 신대방역, 서울대입구역, 구로역, 사당역이 주요 장소
2	랜드마크	- 설명하고 만나기가 편리함
3	거주지의 중간 지점 (3)	-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함께 밥 먹을 장소로 이동
4	모임 공간, 목적지 (3)	- 정기 모임의 경우 목적지에서 바로 만남 - 산책 모임의 경우 보라매공원이나 도림천에서 바로 만남
5	상대방 집 앞 (1)	25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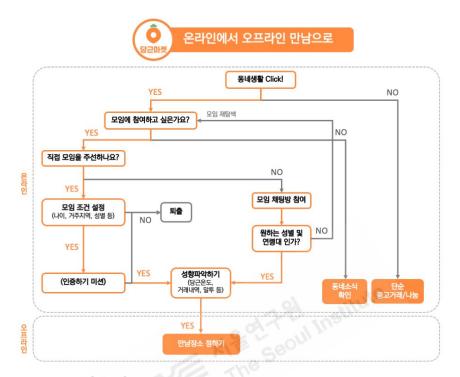
4) 소결

대면 만남을 갖기 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탐색하며, 나름의 기준과 전략으로 만나고 싶지 않은 연령이나 성별, 종교인을 피하기도 한다. 이 과정은 개인의 취향에 따른 것도 있지만 신변 보호와 안전을 위한 검증 과정이며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 나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대변하기도 한다.

대체로 연령대가 비슷해서 대화가 잘 통할 것 같은 또래의 청년을 원하며, 여성의 경우 동네에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동성 친구를 선호한다.

만나는 장소를 역 주변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이며, 소수의 인원이 모일 경우에는 각자의 주거지 중간에서 만나기도 한다.

관악구의 경우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인지하는 오픈스페이스가 도림천과 보라매공원, 낙 성대공원 정도로 한정되어 있으며, 관악산으로부터 연결되는 경사지가 많아 평지인 대로 변을 따라 산책하기도 한다. 걷기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 여성 청년이 선택하기 좋은 코스이기도 하다.



[그림 7] 온라인상에서 대면 만남을 위한 사람을 선정하는 과정

3_청년들의 지역 만남을 읽어내기

1) 첫 대면 이후, 대화의 스킬

온라인에서 나름대로의 검증 과정을 거친 청년들은 대면 만남을 갖는다. 온라인을 통해 만났기 때문에 처음 서로를 부르는 호칭은 익숙한 닉네임으로 한다. 초반에 어색함이 있기는 하지만 동네가 같다는 공통점이 있어 대략적인 집 위치와 이곳에 사는 이유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동네생활 꿀팁'인 맛집 정보, 병원 위치, 단골가게 등을 공유하며 신뢰감과 친밀감을 쌓아간다.

나이대가 비슷하면 무슨 띠인지 이야기하고, 취미생활이나 직업을 공개한다. 최근 대화에 빠지지 않는 소재로 MBTI(성격유형검사)가 있다. 잘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의 성향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에 적합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처음 만난 사람들이 대회를 나누듯 타인과의 관심사를 찾기도 한다. 과거에 무엇을 전공했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한다 등등의 소개가 곧 대화 소재로 연결되기 때문 이다. 어떤 사람은 굳이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화제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기도 한다.

당근마켓을 통해 만난 사람들 간에는 암묵적인 예의가 존재한다. 나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초면에 반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정도만 지키면 다른 부분에서는 대체로 편안하게 대화를 한다. 서로에 대한 신변 확인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말할 때 신중을 기하지만, 말하지 말아야지 하는 건 없다.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냈으며, 무례할 정도의 사생활을 묻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사적인 영역이라고 판단되는 영역 -단점, 가족사, 연애사, 정치 관련 이슈, 돈 관련 문제, 연봉, 무례한 사람, 개인 신상, 사는 곳, 서울대생이라는 신분-은 서로 묻지 않았으며, 딱히 궁금해하지 않는 편이라고 했다. 오히려 상대방이 선을 지키려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 보 ,, 된다. 서로 친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게 된다.

2) 만남의 빈도에 따른 특성

(1) 일회성 만남

당근마켓을 통한 일회성 만남은 필수 활동인 '함께 밥 먹기'를 포함하여 여가 생활의 일환인 커피・술 마시기, 영화・뮤지컬 보기, 노래방 가기 등이 있다. 함께 운동하거나 공부를 하기도 하며, 무거운 짐을 옮기는 등 일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즉흥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활동, 하고 싶은 활동을 함께할 사람을 찾거나 응하는 만남 으로 볼 수 있다.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즉시 만남을 추진하며, 마음이 맞는 경우 두 번째 만남을 추진할 수도 있다. 대화가 편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었음에도 오래 대화를 지속할만한 공통점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만남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청년들은 '관계의 피상성'에 집중하기보다는 '합 의된 활동에 참여해 즐겁게 시간을 보낸 것'에 만족하는 태도를 보인다.

- 함께 식사하기

'삼겹살 먹을 사람! 제가 살께요'라는 글을 보고 가봤어요. 일단 삼겹살은 집에서 구워먹기 도 어렵고 밖에서 혼자 먹기도 어려운 메뉴니까. 혼자 밥 먹기는 싫은데 먹고 싶은 메뉴를 먹자는 글이 올라오면 관심 있게 봐요. 종종 먹으러 나가기도 하고. (청년 J)

- 뮤지컬, 콘서트 보러가기

원래는 평택 살아서 문화체험 할 기회가 없었는데, 서울에 와서 같이할 기회가 있다 보니까... '연극 같이 보러 가실 분'이라고 글이 올라왔어요. 뮤지컬 티켓을 구한 분이더라고요. 뮤지컬 보고 바로 헤어지기는 했어요. (청년 L)

- 산책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답답해서 바람 쐬고 싶어서. 잠깐 나갔다가 와서 다시 공부하고. 올린 사람 지역이 표시가 되는데, 올라온 동네 보고 대략적으로 유추했어요. '신림동'전체 구역에 대한 부담은 없거든요. 이 동네에서는 산책 코스가 도림천 정도로 정해져 있기도 하고요. (청년 L)

[표 8] 일회성 만남의 특성

번호	카테고리	목적	내용/상황	비용 지불
1		고양이 탐정	집에 숨어버린 고양이 찾기	0
2	필요에	벌레 잡아주세요	집에 나타난 징그러운 벌레 잡아주기	0
3	글로에 의한 부탁	무거운 짐 옮겨주세요	0사점이나 큰 가구 등 옮기기	0
4		가는 길에 차/오토바이 태워 주세요	이동 경로가 맞으면 키풀처럼 태워주기	0
5	교육/	모각코	모여서 각자 코딩	X
6	교 택/ 자기계발	공부(스터디) 모임	하나의 주제로 모이거나, 각자 공부할 내용으로 따로 공부	Х
7		밤 산책	보라매공원 및 도림천에서 시간 맞는 사람들끼리 산책	X
8	운동	클라이밍	클라이밍 시설에서 함께 운동	X
9		러닝	구로디지털단지역-육동시장 앞, 낙성대공원, 도림천 등 달리기	Х
10		집에 초대하기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 및 파티	각자
11		커피 마시기	-	각자
12		술 마시기	시간 맞는 사람끼리 즉흥적으로 맨나 술 모임	각자
13		영화-밥-카페 가기	_	각자
14	취미/ 여가	네이버 블로거 체험단 맛집 모임	파워블로거는 협찬을 받고, 같이 먹을 사람을 모아 식사 초대 및 리뷰	Х
15	9/1	독서모임	고정 멤버 없고, 연락처 교환 없이 주기적으로 여는 독서모임	Х
16		뮤지컬, 콘서트 모임	공짜 티켓이 나온 사람들이 초대	Х
17		코인노래방 가기	노래 부르지 않더라도 참여하고 호응	각자
18		같이 밥 먹기	시간 맞는 사람들과 즉흥적으로 밥먹기, 메뉴 중요	각자
19	공동구매	닭가슴살 공동구매	대량으로 구매하는 상품 공동구매	각자

일회성 만남이 무조건 다회성의 만남보다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데, 각 만남에서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다르기 때문이다.

① 긍정적 측면

- 계획 없이도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즉시성

날씨와 감정, 체력에 따라 즉흥적으로 만남을 추진할 때에는 상대가 누구라도 상관없다. 늦은 밤에 만나도 집에 돌아가는 길이 가까워 부담스럽지 않고, 서로가 원하는 활동 또한 같기 때문에 서로의 욕구가 잘 맞아떨어지는 지점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아깝다거나 재미없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감정이 일회성 만남의 특징과는 별개라고 볼 수 있다.

날씨가 좋은 밤이었는데, 집에 그냥 들어가기는 아쉬워서 급 만남을 추진했어요. 서로 한 량처럼 모여서 편하게 깊은 인생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한 시간 반 정도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더 관계를 이어나갈 만한 의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주도해서 모임을 지속하지는 않아서 그렇게 흐지부지되었어요. (청년 1)

밤에 산책한다는 글이 올라왔길래 나가봤어요. '보라매공원 산책'이었어요. 처음 보면 누가되었는 어색한 것은 있긴 한데, 크게 의식은 안 했어요. 시간 낭비하는 느낌이 드는 건 아니예요. 다른 사람들 얘기 듣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청년 N)

- 일회성의 만남이 주는 심리적 가벼움과 편안함

역설적으로 지속적인 만남에서 감당해야 하는 시간과 에너지 투자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기도 한다. 개인 성향상 자주 약속을 잡고 노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혹은 학업이나 취업 준비로 정신적 여유가 많지 않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만남을 갖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그런 게시글은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와서 친구가 없다는 글인데, 같이 놀아줄 비슷한 연령 대의 사람을 구한다고 하면 왠지... 친구가 되면 붙잡혀서 매일같이 불려 나가야 할 것 같 은 부담이 있어요. (청년 P)

취업 준비생이다 보니 지속적인 모임은 부담돼요. 지속적인 모임에서는 책임감,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못 쓸 것 같은 부담감이 있어요. (청년 R)

② 부정적 측면

- 일시적 만남 이후 몰려오는 허무함과 외로움

외로움 또는 심심함에 만남을 가졌지만 그 이후 허무함이 몰려오기도 한다. 알맹이가

없는 만남을 했다는 생각, 진짜 속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여전히 없다는 생각 등 철저히 혼자임을 자각하기도 한다.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을 때는 (외로움이 해소)되는데, 단발성일 때에는 오히려 끝났을 때에 조금 더 외로움이 증폭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청년 S)

감정을 깊게 나누지 않은 사람들과 순간 떠들고 난 뒤의 허무함이요. (청년 M)

일시적인 해소인 것 같아요. 솔직히 기대하는 바가 없지만, 그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있어서 현타가 와요. 그렇다고 친구들을 만나기에는 멀어서 (당근만남을) 반복하게 돼요. 그래도 2명의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초기목적은 동네 친구를 만나자,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자는 게 컸고요. 이제는 그게 충족하기쉽지 않다는 걸 알게 돼서 일시적 해소의 목적이 큰 것 같아요. (청년 U)

- 피상적 대화와 신뢰 부재

지인의 소개나 평가가 없는 상태에서 만난 관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진실을 왜곡하는 대화를 할 수 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 또한 처음 만난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 신뢰를 갖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진심을 주고받는 시간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이는 또다시만남 뒤의 허무한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

걷는 모임에서는 한 번만 참여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돼요. 그때 서로 공유하는 정보는 가공된 정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준재벌인양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청년 M)

(2) 다회성 만남

다회성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특정 목적을 중심으로 모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산책시킨다던가, 재능 나눔으로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배우는 경우, 동종 업종에서 사업을 기획하거나 함께 공부하는 경우, 함께 이직을 준비하는 경우 등이 있다.

때로는 일회성 만남이 다회성 만남으로 연결, 지속되기도 있다. 이때는 만난 사람과 대화의 즐거움을 느꼈거나 관심사가 비슷한 경우, 나이대가 비슷하고 현재 각자가 처한 상황이 비슷해 서로 간의 괴리감 없이 편안함을 느낀 경우 등을 포함한다.

어떻게 만남이 시작되었든지 간에 만남이 지속성을 띄기 위해서는 최소 한 사람의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야 하며, 개인적인 공간을 개방하는 등 먼저 열린 태도를 보였을 때다른 사람들도 쉽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으로 보인다.

① 목적 중심으로 모인 경우

- 영어 회화 공부

어떤 여자분이 호주에 갔다 왔는데 영어를 잊어버리기 싫다고 해서 무료로 영어 회화 과외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집 근처로 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1:1로 이야기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기간은 3개월 정도. 그분이 취업 준비 기간에만 시간이 남아서 했다고 했어요. 가르치는 걸 처음 해서, 돈 받고 하기는 그렇다고 했고요. (청년 S)

- 개발자 스터디 모임

개발자 모임 스터디였는데, 사람들이 잘 모였고 공통의 관심사가 있었어요. 1년 정도 지속되었는데. 목적이 확실해서 이성 관계로 오는 불편함이 없었어요. 따로 개인적인 연락을하지는 않았어요. (청년 J)

- 동네 친구 찾기 (91년생 양띠 모임)

처음에는 동네 친구를 찾는 모임이었어요. 밥 먹자는 내용으로 올라왔다가, 카톡방으로 옮겨졌고요. 남은 사람들이 91년생이라 양띠 모임으로 정했는데 결국 4명이 추려졌어요. 4년 동안 만나고 있고, 1년에 각자 생일 있을 때 주로 연락해요. 여름이랑 겨울에요.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축이 되는 친구가 운영하는 모든 모임이 잘되는 편인 것 같아요. 잘 노는 친구이기도 하고, 모임 시작 당시에 각자 이성 친구가 있어서 이성적인 감정으로 얽힐 일이 없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남자 2명은 프리랜서라 일할 때도 시간 맞으면 자주 만나고, 둘 다 게임을 좋아하더라고요. 성향만 보면 절대 어울리지 않을 사람들이고, 공통점은 나이밖에 찾을 수 없는데도 서로 잘 챙기고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만남이 이어지고 있어요. (청년 I)

- 이직 준비를 위한 92년생 정보 모임

결국에는 모임에서 연애가 시작되어서 흐지부지하게 되긴 했어요. 그중에 아직도 2명이랑 연락하는데, 다들 걸어서 10분 거리에 사니까 서로 연락하고 쉬는 날에도 보기도 해요.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만나고요. 직장인들 시간이 뻔하니까 퇴근하고 만나고. 다들 본가가 지방이라 본가에서 어머니가 김치를 보내주시면 나누기도 합니다. (청년 M)

② 일회성 만남이 오래 지속된 경우

처음부터 구성원이 그대로 정해진다기보다는 처음 모임에서 겉도는 사람은 나가기도 하고, 새로 인원을 받기도 하면서 모임의 안정기를 찾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 밥 먹는 모임

처음 만났을 때는 카페 갔다가 샤로수길에서 고기와 술 먹고 빠빠이 했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 한 분이 이사를 해서 집들이 오라고 해서 거기서 모였는데 강렬했어요.

총 7명이 갔고요.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초대해서 음식도 준비해놓고, 술도 준비해놓고 홈 파티하는 느낌? 어릴 때 느낌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재미있었어요. 그분이 원래성향이 개방적이고, 아지트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더우면 '집 가서샤워하고 나갈게'하기도 하고요. (청년 Q)

- 술 마시는 모임

새벽 2시에 신림역에서 만난 모임이었고, 총 3명이었어요. 남자 2명, 여자 1명. 서로 나이 대가 비슷했어요. 여성분이 혼자 토하고 그래서 실수가 많았으니 밥 한 번 사라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술 마시고 난 뒤에 노래방을 가는 루트였어요. 그 이후에 핸드폰 잃어버렸을 때 찾는 것도 도와주고, 밤 늦게 택시도 잡아주고 그랬어요. (청년 U)

- 영화 모임

영화 모임 이후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간 사람은 MBTI가 똑같고 강아지 옷 만들기라는 공통관심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청년 F)

[표 9] 다회성 만남의 특성

번호	항목	(1차) 만남	지속 사유	빈도	기간	(2차) 활동 확장
1		공무원 모임	정보 교류	주1회	1 - sti	-
2	직무	시업 관련 프로젝트 모임	정보 교류	주1회	1개	-
3		이직 준비	정보 교류/동기부여	주1회	1년	연락의 지속
4		언어 교류	정보 교류/동기부여	주1회	1년	-
5	교육	영어 회화	정보 교류/동기부여	주1회	1년/3개월	-
6	/ /	중국어 모임	정보 교류/동기부여	주1회	4개월	-
7	자기	스터디 모임	정보 교류/동기부여	비정기	1년	제한적 식사 모임
8	계발	재테크 모임	정보 교류	주1회	1년	-
9		자격증 모임	정보 교류/동기부여	주1회	1년/ 5개월	-
10		헬스/PT	정보 교류/동기부여	비정기	-	-
11		러닝	러닝메이트	비정기	-	집까지 걸어가며 수다
12	운동	풋살	구성원 모집의 어려움	비정기	_	운동 후 식사 및 동네 정보 교류
13		배드민턴		비정기	2개월	_
14		산책	거주 근접성/ 동기부여	비정기	_	산책 후 맥주/ 커피 1~2시간

번호	항목	(1차) 만남	지속 사유	빈도	기간	(2차) 활동 확장
15		독서모임		주1회/ 시즌제	1년	-
16		밥먹기	외로움 해소/심심함/ 호기심	비정기	_	_
17	취미	카페투어	정보 교류/심심함	비정기	_	집으로 초대
18	/	코인노래방		비정기	_	_
19	여가	강아지 산책	공감성/동질성/의무 성/정보 교류	주3회	1년	애견카페, 밥, 카페, 1~2시간 수다
20		동갑 모임	공감성/동질성/거주 근접성	비정기	4년/ 6개월	동네친구로 확장 (집 초대, 이사 도와주기, 여행가기 등)

다회성 만남의 긍정적 측면은 정서적 외로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음 맞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게 된 후, 일회성 만남에서 충족하지 못했던 관계에서의 허무함과 외로움을 달래고 만족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차후 일회성 만남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미 구축된 동네 친구와의 관계에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 모임(또래 친구 모임)이 생긴 이후에는 다른 소모임을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이 모임 안에서 여러 소모임이 생기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관계를 통해) 늘 새롭기만 할 수 는 없으니까요. 은근 또 처음 만나면 감정 낭비도 있고, 시간 낭비도 있고 하다 보니까. 투자 대비 굳이 이게 있는데 하나 더 만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생각도 들고. 욕망이 충 족되었다는 느낌? 굳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이 안 나요. (청년 U)

목적을 달성한 뒤 혹은 참여자들 간의 갈등이 생겨 모임이 와해된 경우는 있지만, 다회성 만남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언급한 청년은 없었다.

다만 다회성 만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감정을 빼고 단순 사실 위주의 '정보 교환' 혹은 배움이 이루어지거나, 참여자들 사이에서 이성적인 감정이 싹트지 않아야 함을 언급했다.

(3) 소결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공통의 관심사가 존재하거나, 목적성이 분명한 경우이다. 즉 서로의 욕구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에서 지속성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다회성

만남이 이루어지는 전제는 1차적으로 '목적 중심'이기는 하지만, 1년 이상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참여한 사람들 간의 소통 만족, 즐거움이 있을 때 가능했고, 주로 동갑내기 혹은 또래의 경우가 많았다.

청년들은 일회성 만남을 통해 자신과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내심 진짜 친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존재한다. 마음 맞는 사람들을 만난 경우에는 정서적 충족감을 느껴 일회성 만남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 즉, 일회성 만남을 잠깐의 감정적, 시간적 욕구 충족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오래도록 만나고 싶은 친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당근만남이 갖는 관계적 차별성

당근마켓을 통한 만남은 '지역 내에서의 만남, 기존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가능성'이 있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당근마켓을 통한 만남을 '이웃'의 관점에서 살펴보기에 앞서 다른 관계들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인터뷰 기반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친구 및 직장 동료와의 비교이고 두 번째는 동호회나 소모임 등 취미활동 중심과의 차이점이다.

(1) 친구 또는 직장동료와 다른 점

①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되 비교적 편안한 관계

친구처럼 자연스럽고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편한 상태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만난 사람만큼 선을 지켜야 하는 조심스러운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인간관계 에서 무례하다고 판단되는 선만 넘지 않는다면 대화의 소재나 감정 표현에 있어 자유로 운 측면을 지닌다.

[당근만남] 예의는 차려야 해요. 벽이라는 것도 조금씩은 있어야 되고요. 보증을 서달라거나, 돈을 빌려달라거나 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만 안 넘으면 좋은 문화가된다고 생각해요. (청년 E)

[당근만남] 기본적인 선 이외에는 웬만한 건 가능하다고 봐요. 처음 봐서 기본적인 예의만 지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 감정이 어떤지까지 디테일하게 보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청년 J)

② 언제든 관계를 맺고 끊을 수 있는 가볍고 부담 없는 관계

일회성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마음이 잘 맞거나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와해될 수 있다는 것이 만남의 전제가 된다. 따라서 관계 맺기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 번 만나고 안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과는 다소 피상적인 대화를 선택하기도 한다.

[친구 VS 당근만남] 친구 중에서도 학창 시절을 함께한 친구와 20살 이후 사회에서 만난 친구와는 절대 같아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속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피상적인 얘기만 하게되니까, 20살 이후의 사람은 끊어지는 게 아쉽지도 않고요. 학창 시절 친구들은 자주 만나지않아도 그래도 '친구'라고 생각해요. 1년에 한 번 보더라도 친구는 친구죠. (청년 1)

[당근만남 VS 직장동료] (당근만남은) 통하는 사람 있으면 다음에 또 만나고 아닌 사람 있으면 '안녕히 가세요'라고 선을 그을 수 있어요. 나랑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걸러지죠.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가볍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취미를 공유할 수 있고. 그렇다고 직장 동료처럼 너무 일적으로 엮이지도 않으면서… (청년 E)

[당근만남] 이질감이 있으면서도 편한 느낌이예요. 여기서는 서로 간을 안 보거든요. 만났다가 맘에 안 들고 재미도 없어, 그러면 연락을 끊고 안 봐도 지장이 없으니까 부담감이 덜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면 상대방도 알아들을 수 있고요. 좀 더 맺고 끊음이 쉽다고 할까요? (청년 Q)

관계의 깊이나 지속성, 편안함의 정도 측면에서 '친구'와 '당근만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많은 노력이 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감정적 부담이 적다고도 볼 수 있다.

[친구] 친구한테는 친구의 마음까지 고려하게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신경 쓰고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요. (청년 J)

[친구 / 직장동료] 일상에서는 친구끼리 얽혀있으면 사이가 틀어질까 (걱정하는) 그런 게 있고. 학교나 일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얼굴 마주쳐야 하니까... (청년 Q)

[당근만남] 1회성 만남은 나의 즐거움을 찾고자 가는 거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할 필요가 적어서... (청년 M)

③ 솔직한 상황과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

지역 기반의 당근만남은 일회성의 만남일수록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털어놓기 좋은 관계가 된다. 가족, 친구 혹은 직장과 관련하여 얽힌 사람들이 없이 대체로 동네가 같다 는 공통점만 존재하기에 자신의 행동과 처사에 대한 다른 이들의 평가가 삶에 크게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함께 실컷 욕해줄 수도 있다. 제 3자의 객관적 인 반응도 접할 수 있고, 대화가 불편해진다 싶으면 연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솔직할 수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당근만남] 모르는 사람은 내가 처음 듣는 시선으로 얘기해 주기도 해요. 친구들한테 못하는 얘기도 하게 되고요. 두 번 볼 사람이 아니라... (청년 A)

[당근만남] 자신의 직업을 노출할 필요 없이 '청년 E' 자체를 보기 때문에 (직장에 대한 물음 등으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서 좋아요. (청년 E)

[당근만남] 코인노래방에 같이 갔던 그 사람이랑 연락하면서 '이번주 꺼 실험 다 난리 났고, 싹 다 날려 먹고 있다. 교수 왜 이러냐, 실험 조졌다. 이런 얘기도 해요. 대학원 동기보다는 많이 친한 것 같아요.(청년 T)

특정 사건에 대한 솔직한 대화도 가능하지만, 개인의 과도기적 상황을 편하게 개방할수 있는 관계이기도 하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파서 쉬고 있을 때 주변의 자리잡은 친구들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때 동네 이웃, 동네 친구들은 청년들이 '보여지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당근만남] 공부하는 시기이다 보니, 만나는 것에 부담이 있어요. 친구는 다 일하고 바쁘고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만나기 귀찮아요. 취업을 하고 나면 친구를 만나러 갈 정도의 마음의 여유는 생길 것 같아요. (청년 J)

관악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들은 대체로 비슷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한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투룸에 혼자 살면서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다. 실제로 경제적 생활 수준이 어떤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관악구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는 점, 비슷한 전·월세를 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동질감을 느낀다. 친구들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은 경제적 측면이나 생활적으로 겪는 어려움 등을 당근만남의 관계에서는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게 된다.

[당근만남] 자취 생활에 대해서 공감이 가능하죠. 관악구를 선택했다는 것에서 '경제적인 수준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독립한 사람들이 느끼는 생활의 '쪼들림'에 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학교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돈 낼게'의 반응이 나와서 부담스러워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청년 A)

[당근만남] 신림은 특히 서울에 갓 상경한 사람이 사는 동네예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도 만나볼 수 있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에너지가 넘쳐요. 평택에서 살 때는 가까운 사람 위주로 이웃이 형성되었던 것 같은데, 서울에 와서는 원하는 바가 부합하는 사람들 위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좋아요. (청년 L)

[당근만남] 비슷한 분들이 많다 보니 그런 면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고통을 함께하는 느낌? (청년 S)

④ 특별한 준비 없이도 바로 만날 수 있는 관계

친한 친구들끼리는 자주 보면 한 달에 세네 번, 자주 만나지 않을 때는 세네 달 동안 보지 않고 시간 맞을 때 본다는 청년이 있다. 고향 친구는 분기별로 만나고, 시간이 안 맞으면 일 년에 한두 번 보기도 한다. 대체로 관악구 내에는 평소에 만나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다. 이처럼 기존의 친구들이 가까이에 살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만나려면 시간 과 장소 조율이 까다롭다. 그러나 당근만남으로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은 시간도, 옷차림 도 크게 신경 쓸 것 없이 즉석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한다.

[당근만남] 예전에는 멀리 약속 잡기도 했는데, 지금은 거리적으로도 멀면 힘들고 피곤하고 요. 보통 만나면 그 사람들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니까. (집 가까이에서 만나면) 집에 갈 때도 교통 걱정 안 해도 되고, 마음도 편하고요.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움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청년 D)

[당근만남] 당근마켓은 동네를 기반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이라서 동네 친구를 찾고 싶어요. 학원은 공부를 목적으로 모인 거라 친구를 만나기는 쉽지 않고. 준비 안 하고 바로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멀리 있는 사촌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잖아요. (청년 U)

⑤ 목적이 같아 심리적으로 편하고 대화 소재가 많은 관계

친구는 아무런 목적 없이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당근만남은 서로가 합의한 시간대에 원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욕구가 잘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거나, 상대방의 컨디션을 눈치껏 살필 필요 없이 목적 중심의 시간을 보내면 된다. 즉 관계 중심보다는 목적 중심성이 높았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다.

[당근만남] 점차 보면서 오히려 이쪽(당근만남)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친구 만들러 나오고 서로 만나려고 나온 것이기도 하고. 서로 원해서 이 모임에 나왔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청년 O)

[친구/당근만남] 친구와 산책을 하게 되면 눈치를 봐야 해요. 강아지의 컨디션, 친구의 컨디션을 모두 고려해야 하다 보니. 당근마켓에서는 목적에 맞게 만나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청년 C)

[친구/당근만남] 친구는 시덥지 않은 얘기도 하게 되지만, 동네 친구들이랑은 좀 더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만남으로 이어가려고 해요.(청년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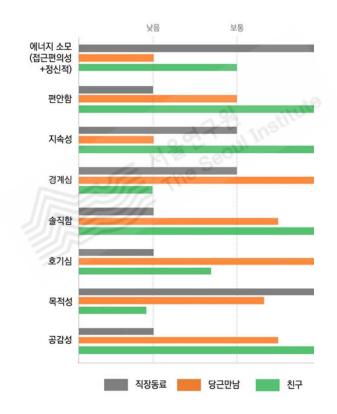
[친구] 공통 관심 분모가 없어요. 연애 얘기도 관심 없고요. 자랑이나 우는 얘기뿐이예요. 친구에게는 제 관심사를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당근만남] 공통분모(강아지)가 있는 사람들과는 그에 관한 얘기가 아니더라도 매일 얘기를 나누게 되요. (청년 H)

⑥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과는 다른 신선한 관계

친구들과는 오랜 추억과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지만 오랜만에 만나면 함께 시간을 보냈던 당시의 이야기에 집중하게 된다. 서로 아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화의 소재가 한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당근만남은 서로의 배경과 현 상황이 달라 대화가 새롭 고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친구/당근만남] 친구는 이미 서로 많은 걸 알고 있어서 편한 상태라고 한다면, 당근만남은 목적성을 가지고 만나다 보니 서로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청년 F)

[친구/당근만남] 친구랑은 과거 얘기, 근황 토크 등 하는 얘기가 정해진 경우가 많은데 (당근만남은) 만남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나기보다는 신선함이 큰 것 같아요. 여러 직군 등 다양함이 있어서요. (청년 1)



(출처: 인터뷰를 기반으로 연구자가 단순화시켜 임의 작성)

[그림 8] 관계별 만남 특성

(2) 동호회 등 취미·취향 중심의 만남과 다른 점

청년들은 온라인을 통해 취미 활동을 함께 하는 다양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소모임, 솜씨당, 문토 등이 있으며 각자가 원하는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어학을 배우거나, 사교 및 친목 활동에 참여하거나,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등 접근할 수 있는 활동의 영역과 모임 공간이 매우 다양하다.

앞서 관계 중심에서 당근만남이 갖는 특성을 살펴보았다면, 취미 중심의 동호회 활동 만남과는 어떤 점에서 차별성을 지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① 낮은 강제성·지속성

당근 모임은 다른 동아리 모임처럼 벌금제가 있다거나, 철저한 규칙을 내세우지 않다 보니 모임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가벼울 수 있다.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참여자들의 의 지가 약하거나 지속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

[취미모임/당근모임] 유령회원일 경우는 벌점 제도도 있고, 1주일에 지속적으로 만나는 기간도 있다 보니 모임이 지속되는데, 당근모임은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강해요. 처벌하거나 안 나와도 그만이니까. (청년 U)

[취미모임] 강남 쪽 영어스터디(2016년)는 1회 모임에 참가비 2만 원을 내고, 현재 모임은 음료값만 내고 모여요. 다른 모임 어플은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게 부담되기도 해요. (당근만남) 근거리 어플이라 편리한 만큼 진정성 없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50명 연락 왔는데 모임은 4명만 나왔거든요. (청년 C)

[취미모임] 보드나, 자동차 동호회는 만남이 1~2년 정도 지속되고 있어요. 당근마켓보다는 관심사에 대해 열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속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청년 N)

② 높은 지리적 접근성

지역 만남이라는 특성상 멀리 가지 않고도 동네에서 다양한 모임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ovid 팬데믹을 겪으면서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주거지 근방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영어스터디를 너무 모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강남까지 가기는 싫은데, 신림에서 하고 싶었죠. (청년 C)

[당근만남] 관악구라서 따름이 타고, 걸어서 다 갈 수 있어요. 동네 기반이라 서로 만나기가 쉽고요. [취미모임] 보통 중간 지점인 강남에서 만나야 해서 귀찮아요. (청년 J)

[당근만남] 당근마켓은 동네 기반으로 모이니까, 내가 시간되었을 때 참가하는 개념이니까 편하긴 하죠. (청년 N)

③ 동네 주민이라는 공통점에서 비롯된 친밀감

만남을 갖기 전에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일반 취미모임은 관심사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남이라고 인식하지만, 동네 모임은 거주지가 인접하다는 특성 외에 중복되는 면이 없음에도 왠지 모를 편안함과 친근감이 든다고 한다.

[취미모임] '소모임' 어플을 통해 만나는 사람은 '생판 남'으로 인식돼요.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과는 공감대 형성이 잘되고 마음이 더 편안하고, 경계심이 허물어져요.

[당근만남] 같은 동네라면 내적 친밀감 형성되고, 의심과 경계심이 줄어듭니다. 동네에 아는 정보도 많아지고. 물건을 사려고 만났는데 10분을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청년 C)

이는 앞서 설명한 당근마켓의 '온도'와 같은 인증 시스템 및 동네 이웃이라는 관계 명명에 맞물린 신뢰감의 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당근만남] 이상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나니까, 괜찮은 것 같다- 생각했죠. 본인 인증을 하고 가입하는 거니까. (청년 K)

[당근만남] 당근마켓은 지역 기반이다 보니 동네를 지나다니다 만날 수도 있다 보니 좀 더신뢰가 갔던 것 같아요. 표현하는 것도 조심스럽구요. (청년 I)

④ 다른 활동으로의 높은 연계 가능성

당근만남은 취미 위주의 모임보다 목적성, 강제성, 지속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 나 친목과 재미를 위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본래의 모임 목적이 달성되더라도 서로 마음이 맞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형태의 친목모임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평소에도 취미 위주의 모임은 책 읽고 토론하기 등 핵심 활동이 끝나면 각자 집에 가기 바쁜 양상을 보이지만, 당근만남은 집이 모두 근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볍게 대화를 나누거나 차 한 잔 마시는 데에 부담이 없다.

[취미모임 VS 당근만남] 제가 청년들 인력 동원하는 공고를 여러 군데에 냈었어요. 당근을 통해서 온 사람들은 재미로 오는 사람 위주였고, 스펙업이나 에브리캠퍼스 같이 온라인 카페 통해서 오면 상장받기 위해서 왔던 기억이 나요. 정책 경연대회 나가면 봉사 시간 주는지 물어보고. 당근은 그 이후로 모임이 연결되기도 했어요. 친목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목적을 달성해도 지속적으로 만나게 된다고 봐야죠. 애초에 목적이 없었으니까요. 밥도 먹고, 1년 정도 지속되었어요. 목적 자체는 8개월 전에 끝났고 그 이후부터 지금도 쭉 만나고 있어요. 스펙업은 목적성이 이루어지면 와해되고요. (청년 E)

[취미모임] 주로 공부를 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공부만 했어요. (당근모임) 동네모임은 오래 보기도 했고, 얘기도 많이 나눴기 때문에 (모임 끝나고) 편하게 밥 먹기도 하는 것 같아요. (청년 J)

본래의 목적에서 파생된 지역 내의 의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관악구 내의 캣맘들의움직임이 그러하다.

[당근만남] 관악산 유기묘, 유기견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근마켓에서 모여서 동물보호단체 (카라)에 연결했어요. 캣맘들이 서로 시간을 정해서 사료 주는 시간, 물 주는 시간 등 돌아 가면서 돌보기로 했고요. 경비원들과의 갈등을 당근마켓을 통해서 민원을 넣어 해결한 적도 있어요. (청년 C)

(3) 소결

당근만남은 학창 시절의 친구만큼 친밀하거나 가끔 봐도 편안한 관계는 아니지만 인접한 곳에 거주한다는 점에서 심리적 부담이 없는 관계이다. 온라인을 통해 만난 관계인 만큼 쉽게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는 점도 한몫한다. 일회성 만남의 가벼움이 관계 맺기의 진정 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자신의 솔직한 고민을 털어놓기 좋은 상대가 된다. 늘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신경 쓰고 살아야 하는 현대 청년에게 심리적 자유로움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늘상 자기 주변의 비슷한 환경을 가진 친구들과는 다른 다양한 직군과 성장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양식을 이해하고 생각의 폭을 확장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같은 동네 주민이라는 점에서 일일이 서로를 소개하지 않아도 왠지 모를 친근감을 공유하는 관계이며, 특정 목적을 중심으로 만났다고 하더라도 다른 활동으로의 연계가 쉽게일어나는 특징을 보인다.

현재까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특정 성별, 연령대, 직업군 별로 관계 맺기에 대한 이슈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관악구 거주 1인 가구 청년이라는 공통된 배경에서 원하는 관계성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심리적·정서적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관계 이슈

번호	특성	연령 (만 19-39세) 중	0슈
1	여성	청년 연령	 - 안전 확보 - 취미생활의 공유 → 동성 친구 선호의 배경 - 자기계발/취직 준비
2		30대 중후반	- 친구들의 결혼으로 관심사 등이 달라지면서 외로움 경험 - 생애주기 활동이 비슷한 친구를 만들고자 함

번호	특성	연령 (만 19-39세) 중	0슈
3	남성	청년 연령	- 자기계발/취직 준비 - 운동을 함께할 동네 친구
4	-	30대 후반	- 20대 초반 청년 일부에게는 심리적 거리감이 드는 연령 -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고 소위 '꼰대'처럼 행동할 경우 배척당하기도 함 → 만 19~39세라는 넓은 범위의 청년 내에서도 중년에 기깝게 인식되기도 함
5	취업 준비생/ 학생	_	- 취직해서 일하고 있는 학령기 친구들에게는 드러내기 싫은 시기 - 쉬는 시간에 적은 비용과 에너지로 만날 수 있는 동네 친구 선호
6	회사원	_	- 퇴근 후 가볍게 동네에서 시간 보내기

4_그들과의 만남을 기대한다

연구원 Seoul Institute 1) 당근만남을 추진하는 이유와 기대하는 것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분야, 계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법한 청 년들이 왜 굳이 당근마켓이 제공하는 지역 내 만남 서비스를 이용할까? 이에 대한 질문 에 가장 많은 응답으로 '동네에서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1인 가구 가 많은 관악구는 학업이나 직장으로 잠시 정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지역 내의 지속적인 관계망이 매우 악한 특성을 지닌다. 초, 중, 고등학교로 연결되는 학령기 의 친구들 없이 홀로 떨어져 있는 시기이다. 관악구에서 만난 대학교 친구들도 타지로 이동하고 나면 남은 사람은 또다시 혼자가 된다. 본가가 관악구에 있는 청년일지라도 본인이 학창 시절에 유학을 경험했던 경우에는 1인 가구 청년들이 느끼는 것처럼 '만날 사람이 없다'고 느낀다. 가족 외에 동네에서 비슷한 또래의 비슷한 고민을 하는 누군가 를 만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30대 초중반의 1인 가구 여성은 오랜 친구들이 결혼과 육아라는 새로운 인생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비슷한 처지에서 편 하게 만날 상대가 없다고 느끼기도 한다.

[표 11] 당근마켓을 통해 동네 이웃을 만나는 이유

번호	이유	특성
1	동네에 아는 사람, 주기적으로 만나는 친구가 없다 (14)	관계
2	외롭다 (12)	관계
3	심심하다/시간 때우기 (10)	시간
4	다양한·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 호기심 (10)	관계
5	동일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을 찾고 싶어서 (5)	관계
6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할 때 더 좋은 경우가 있어서 (식사, 운동 등) (4)	활동
7	계획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것을 (즉흥적으로) 하고 싶다 (4)	시간
8	동기부여 (2)	활력
9	무료한 삶에 활력과 흥미를 얻고 싶어서 (2)	활력
10	마음 놓을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서 (1)	안식
11	집이 좁아 답답하고 나가고 싶어서 (1)	활력

(응답 수는 인터뷰 시 관련 내용을 언급한 횟수임)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은 '외로움'이다. 첫 번째 응답과 연결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없는 1인 가구이기에 더욱 강렬하게 느끼는 감정일 것이다. 인터뷰에 응한 청년들은 당근마켓은 물론이고 인스타그램(47.6%, 10명)과 페이스북(23.8%, 5명)과 같은 온라인 SNS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비대면의 관계로는 채워지지 않는 대면 만남의 욕구가 존재하고 있었다. 사교적 특성에 대한 관심과에너지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내향형'의 청년들조차도 관계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들은 단지 빈도가 외향형의 사람보다 적을 뿐, 사람과 함께하면서 얻는 에너지와 활력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 외로움 / 심심함

원래 성향으로 보면 내향적이고 철벽을 잘 처요. 그렇지만 외롭긴 하죠. 그때그때 다른데, 사람 만나면 충전이 되죠. 매일 매일 나가고 싶을 때도 있고. (청년 G)

학교에 그렇게 친한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도 오래 안 만나기도 하니까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무작정 (글을) 올려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람 만나고 싶었던 게, 동네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알면 좋지 않을까 싶었고 이웃이 많이는 없어도 되는데 아예 없는 거는 좀 그러니까.. (청년 T)

-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 / 호기심

맨날 맨나는 친구들이 있긴 한테, 좁은 인간관계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 맨나고 싶어서요. 다양한 직종의 사람도 있고, 나이 차가 있거나 영업하러 나온 사람 등 다양해서요. (청년 G) 친구들끼리는 비슷비슷한 사람이고,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모임에서는 천차만별로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면 흥미롭기도 하고 재미도 있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 을 보면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견문이 넓어지는 느낌? (청년 U)

- 동일한 관심사의 공유

남자친구랑은 다르게 여자들끼리만의 대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쇼핑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청년 D)

-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할 때의 즐거움

밥을 혼자서도 잘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먹는 게 더 좋더라고요. 약간의 기대감도 있고.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거라는. 처음 만난 사람과 얘기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청년 J)

같이 산책하면 더 멀리 산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외식부터 전통시장 가기, 단기 알바 같은 것도 같이 해요 (청년 A)

혼자 뛸 때는 '그날 일이 힘들었다, 대학원에서 큰일이 있었다.' 그러면 귀찮아서 집에서 누워있고 싶은데, 약속이 있으니까 뛰러 가게 돼요. 한강이나 다른 뛰시는 분들이 많은 곳은 뛰면서도 의식하게 되어서 힘들 때 계속 뛸 수 있어요. 당근에서 만난 분이랑 둘이 자주 하는 얘기가 부상 안 나게, 자기 속도 맞춰서. 의식하지 말고, 뛰자예요. 내 몸 컨디션에 맞게 편하게 뛰어요. 그러다 보니 러닝 할 때 마음가짐도 차분해지고. 스터디할 때도 이거 아니었으면 집에서 쉴 텐데. 공부하려고 나오는 느낌으로. (청년 P)

혼자 하는 산책보다는 말동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단체활동하면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스스로 조절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습관적으로 야식을 먹었는데, 걷기모임하면서. (청년 K)

- 무료한 삶에 새로움과 활력을 얻기

당근마켓으로 친구 만나는 것에 대한 엄마의 반대가 있었어요. 위험할 수 있으니 친구를 만나라고 했어요. 할 게 없으면 무기력하게 있었는데, 당근마켓으로 만난 이후에 동네 친 구들 만나고 하는 걸 알고 좋아하시게 된 것 같아요. (청년 F)

이러한 청년들의 내면적 욕구는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2020년 3월 Covid-19 팬데믹 선언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청년들 역시 사회적 관계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통계청에서 진행한 2021년 코로나 전후 청년들의 사회관계망 조사를 보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 청년들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근거리 지역 만남으로의 전환 움직임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 Covid-19 팬데믹 전후 청년의 사회관계망 변화

(단위: %)

년도	(1)	(2)	(3)	(4)	(5)	(6)
2019 (이전)	79.6	2.3	51.4	2.2	83.3	2.9
2021 (이후)	72.8	2.3	50.1	2.2	79.6	2.9

- (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있음
- (2)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원(평균) (명)
- (3)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있음
- (4)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원(평균) (명)
- (5)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있음
- (6)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원(평균) (명)

출처: 청년백서(2021).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에서 2021.12.19. 인출 자료를 연구자 재구성

[표 13] Covid-19 팬데믹 전후 지역 만남에의 적극성과 빈도 변화

지역만남의 빈도		0 유
지역 만남 증가(5)	근거리 만남 욕구 형성 및 지속(4)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 온라인을 통한 만남 시작 Covid-19 이전에는 거래 목적으로만 사용하다가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지역 만남을 위해 활용 서로의 욕구가 맞는 사람들끼리 근거리에서 편하게 모임
	일시적 증가(1)	- Covid-19로 지인을 만나지 못해 온라인을 통해 지역 만남 추진 - 팬데믹 종식 후 지인 만남으로 전환 예정
대면 만남 자체의 감소(4)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인원제한)으로 대면 만남 어려움 - 1회성 모임의 자제 - 온라인 및 전화 등 유선상의 연락 축소 - 직장에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만남 자제
 영향 없음(1)		- 전후 대면 만남의 빈도 차이 없음

출처 : 인터뷰 기반으로 연구자 작성

2) 당근 거래·만남 후 '이웃과 동네' 관련 인식 변화

초기에는 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나쁘지 않았던 경험의 축적이 온라인을 통한 만남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갖게 한다. 서로를 경계하던 모습에서 오히려 그도 나와 같이 불안할 것이라는 동질감을 얻기도 하고, 실제로 만났을 때 직감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판단을 하기도 한다.

모임이 소규모이기도 하고 그분도 나를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지니까 굳이 경계할 필요 없겠다 생각했죠. (청년 P)

나쁜 의도로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경계를 했죠. 10번 정도 만나다 보면 경계하지는 않게 돼요. (청년 M)

옛날에는 이렇게 (SNS를 통해서) 만나는 게 꺼림직하고 이상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SNS가 활성화되어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회성으로만나고 하니까. (청년 K)

처음에 어플(당근마켓) 쓰면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막상 사용해서 만나보니까 이상한 사람 거의 없고. 괜찮았어요. (청년 L)

대면 만남 과정에서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뿐 아니라 이웃과 동네에 대한 생각의 변화로 확장되기도 한다.

① 익명의 동네 사람이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들'임을 느낌

청년들은 온라인상에서 나름대로 상대방을 가늠하고 평가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알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대면 만남 이후에 상대방은 익명의 누군가가 아니라 한 인간이자 동네 이웃으로 현화(現化)한다.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려면 이태원, 홍대를 가야 했는데, 동네에도 사람이 많이 산다는 걸알게 되었어요. (청년 C)

서울이 배울 것은 많은데 정착하는 것은 힘들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당근마켓 모임 하기 전까지는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유능한 사람도 많고.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청년 L)

커피 마시실 분, 영어 공부같이 하실 분 등을 찾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만 필요한 줄 알았는데 다들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길거리를 다닐 때는 쌀쌀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동네 사람에 대한 인식이 변하더라고요. (청년 S)

이처럼 당근만남을 통해 이웃 또한 나와 같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점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짧고 긴 관계 맺기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을 둘러싼 '막연한 타인'이 아니라 '나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자 '내가 만날 수도 있는 사람들'로 이해한다.

인터뷰에 따르면 당근만남뿐 아니라 중고 물품 거래를 하던 찰나에도 '이웃의 정'으로 이름 붙일 수 있는 따뜻한 감정을 느낀다. 비록 그 감정을 제공한 상대가 청년은 아니었지만 호혜적 경험을 통해 동네 사람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가 상승하였으며, 본인이 받은 혜택을 타인에게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당근거래를 하다 보면, 먹을 것을 잔뜩 가져오신 다던지 설명서를 직접 손으로 써온다 던지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 세상이 살만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생각도 하고요. (청년 P)

처음에 (당근)중고거래 할 때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인상이 강렬했어요. 그러면서 동네 친구를 사귀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주머니가 시골에서 받은 엄청 큰 호박을 주셔서... 생각도 못했는데 '이웃의 정이 이런 건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40~50대 서너 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 D)

② 동네 애착 강화

지역 내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혼자 생활할 때보다 활동 반경이 넓어진다. 알지 못하거나, 혼자 가기 어려운 음식점도 가게 되고, 함께 공부하면서 집중하기 좋은 카페들을 방문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동네 구석구석을 경험하고, 함께 갔던 사람과의 기억을 새기게 된다. 구술 자료에 의하면 동네에 정착해 살아왔던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보다는 누구와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동네에 대한 추억과 애착을 증대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근을 하기 전에는 이 동네에 산 시간이 훨씬 긴데(2년 반), 그동안에는 동네에 크게 정이 든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당근마켓을 통해서 '사람 사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네 정보도 당근 맛집 정보 보고 갔거든요. 그런 거(당근모임/생활) 하면서 동네에 정이 들고 살기 괜찮은 동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청년 P)

추억이 하나씩 생기면서 동네에 대한 애착이 커졌어요. 오렌지 연필, 서울대입구 스타벅스, 맥줏집, 고깃집 등 자주 가고 자주 모인 곳에 애착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당근마켓을 통해서 공간에 대한 애착이 확장되었어요. (청년 J)

타향살이에 가족, 친구도 없는데 정서적 어려움이 많았어요. 관악구 심리지원상담 1인 가구 상담도 받아봤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애매했고, 학생들, 취업준비생 위주였어요. 동네에 아는 사람이 생기면서,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동네를 떠나기 아쉬워지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새로운 동네면 새로운 네트워크를 또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청년 H)

③ 또 다른 이웃들에 대한 이해의 폭 증가, 편견 감소

당근만남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이 가까운 동네 사람일지라도, 평소 자신이 만나기 어려운 다양한 직군과 연령대, 성장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특히 관악구에 사는 청년들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한데, 대체로 학령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동네에 거주하는 경우보다는 상황에 의해 정착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관악구 주민뿐 아니라 인간 군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형성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람들에 대해 가졌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성 중심의 관용적 태도를 갖게 된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있지만 요즘 트렌드를 더 잘 아시는 분도 있었고, 남자지만 소녀 같은 사람 등 다양한 것 같아요. (청년 F)

학교에서는 비슷한 점의 사람과 친해지는데, 당근에서는 아이에 처음 만나는 사람이다 보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잘 모르는 분야의 사람도 있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청년 O)

당근에서 만나면 청소 아저씨, 범죄자, 건물주, 기초 수급자도 만날 수도 있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다른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요. 나의 지식도 늘어나고, 재미도 있고, 시간도 보내고. (청년 E)

④ 당근을 통한 관계 맺기에 대해 회의감·어려움 토로

당근만남으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도 생기지만 갈등이 생겼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더크게 다가오기도 한다. 가깝게 지냈던 사람과 갈등이 생겨 멀어지거나, 성향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동네 이웃뿐 아니라 타인과 관계 맺는 것 자체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기도 한다.

당근에서 만나고 헤어진 관계들 때문에 나이를 헛산 것 같아요. 아직도 모르겠고... 사람이다 싫어지기도 해요.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나이 들어도 다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나이 돼도 맘 먹고 사기 치려는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결국은 내 멘탈을 강화하는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청년 D)

나이 차이 많다는 분들 만났을 때는 '시간 낭비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언가 일방적으로 듣기만 했을 때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소통이 안 되다 보니 '내가 왜 이런 모임을 가졌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 S)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당근만남에 큰 기대를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거나, 온라인을 통한 일회성 만남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당근 모임은 일시적인 해소인 것 같아요. 솔직히 기대하는 바가 없지만, 그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있어서 현타가 와요. 그래도 2명의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초기 목적은 동네친구를 만나자,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자는 게 컸죠. 이제는 그게 충족하기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돼서 일시적 해소의 목적이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청년 U)

3) 당근만남의 역할·가치

당근만남으로 동네 이웃을 만나는 이유로 선별된 11개의 항목 중 '관계' 중심의 항목이 36.3% (4항목)인 점은 동네에서 누군가와 관계 맺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21명의 청년 중 18명은 학업 또는 취업을 위해 홀로 관악구에 자리 잡아 생활하고 있다. 관악구에 본가가 있는 3명 중 2명의 경우에도 학령기에 해외 유학을 다녀왔기 때문에 동네 친구가 없는 상황이다. 지연과 학연의 기회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동네 이웃과의 관계맺기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거나 시간을 때우는 행위그 이상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거주지에 꾸려 익숙한 관계와 장소를 늘려가고 현재의 시간을 충실히 보내는 것이다. 혼자서는 가지 않던 장소들에 방문하는 경험이 늘어나면서 동네에 대한 애착이 생기기도 한다. 즉, 관악구 그리고 서울에 '발을 붙이는' 과정의 일환이자 동네 속으로 '정착'하는 행위라고도볼 수 있다.

5_청년이 바라보는 '이웃', 새롭게 정의하기

1) 인접한 이웃과의 관계 돌아보기

그렇다면 실제로 인접해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들과는 얼마나 소통하고 있으며, 교류 정도가 어떤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표 14] 인접한 이웃과 얼마나 소통하시나요?

번호	소통 정도	응답 수	비율(%)
1	전혀 모름	11	40.7
2	얼굴만 안다	4	14.8
3	간단한 인사를 나눈다	5	18.5
4	음식을 나누는 등 비교적 친밀한 관계이다	2	7.4
5	알고 싶지 않다	5	18.5
	소계	27	100

응답 수는 인터뷰 시 관련 내용을 언급한 횟수임

이웃과 비교적 친밀한 관계라고 언급한 경우는 현재는 독립해서 살고 있지만 본가가 관악구 내에 위치한 경우였다. 부모님과 주변 이웃들이 오랜 시간 알고 지내면서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오며 가며 안부를 묻는 관계이다.

그 외에는 약 40%의 비율이 누가 사는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생활 패턴이 달라 얼굴을 마주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경우에는 인접한 이웃이 아니라, 인심 좋은 건물주 아저씨, 1층에 자주 앉아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같은 직장에 근무했던 지인 등이었다. 당근마켓 중고 거래로 만나게 된 사람이 같은 건물 다른층에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이후에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남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생활 반경에서 편하게 인사를 나누는 사람은 인접한 이웃이 아니라 자주 가는 식당 주인이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을 우연히 알게 된 경우가 아니고서는 '알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20%로 나타났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적은 교류와 소통의 의지 부재

① 생활 패턴의 차이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생활 패턴이 달라 마주칠 일이 없기도 하지만, 설사 마주친다고 해도 어색하고 불편함을 느껴 피하고자 한다. 인용문에서 언급되듯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인식보다는 본인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막연한 존재로 느끼고 있다.

같은 건물 사람은 생활 패턴이 다르다 보니까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저랑 결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청년 D)

이 사람들을 전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게임에서 NPC³⁾ 같은 사람이죠. 정을 주고 얘기하지 않듯이. 복도에서 지나가면 서로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요. (청년 R)

옆집 사람하고 마주칠 일이 많지 않아요. 서로 라이프 사이클이 달라서 그런지 대회를 해 본 적은 없는데 인접한 사람들이랑은 오히려 피하려고 해요. 어색하니까. (청년 P)

② 생활적 갈등으로 부딪히는 존재

이웃과 소통해야 하는 상황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 문제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물이 새는 문제, 택배 문제, 생활 소음과 같은 각종 생활 속 문제 상황에서 주로 만나기 때문이다.

³⁾ NPC (Non Player Character): 게임에서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는 캐릭터로 조작이 불가능한 특징이 있음

이웃과의 접촉은 물 새는 것이라던가 택배, 소음 등 부정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 아요. (청년 C)

서로 말할 내용은 부정적인 내용밖에 없어서. 부정적 의사소통을 할 바에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서요. (청년 H)

택배 문제로 불쾌하고 이해 안 되는 일을 겪었거든요. 이상한 사람이 바로 옆집이면 더 불 편하죠. 억지로 해야 하는 관계는 원치 않아요. (청년 D)

교과서와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도움이 안 돼요. 아파트이고 원룸이 많기 때문에 문 닫고 사는 시대죠. 소음도 심하고. (청년 B)

③ 개인의 사생활을 지켜볼 수 있는 불편한 존재

관악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대체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하기 때문에 생활 소음 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신이 원치 않더라도 샤워 하는 시간대나 전자레인지 돌리는 시간, 통화하는 내용 등 지극히 개인적인 생활 패턴이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주거 환경은 서로 간에 불편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는 여지로 Institute 작동한다.

- 열악한 거주 환경으로 인한 일상 노출의 불편함

원룸\이다 보니 방음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음악을 크게 틀어 놓는다 던지. 그런 걸 같이 공유한다는 게 불편해요. 내가 무엇을 듣는지, 누구랑 통화하는지, 언제 씻는지 등 알려주 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인근에 사는 사람은 서로 모르고 남인 상태가 더 낫다고 생각해 요. (청년 R)

집에서만큼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은데, 같은 건물에 아는 사람 이 있고 그 사람이 나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행동을 조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접한 이웃은 지극히 사적인 개인 공간의 확보를 어렵게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 타인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개인적 생활방식 (본인이) 흡연자인데, 이웃들이 알아보는 것이 싫어요. (청년 C)

제가 활발한 편이라 동네에서 어른들 만나면 명절에 용돈도 주시고. 초복도 챙겨주시는 것 들은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남자친구 생기는 일 등은 알리고 싶지 않은데 1주일 안에 엄 마 귀에 들어가요. (청년 F)

옆집 사람이랑은 인사만 해요. 원룸에 살지만, 같은 원룸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학원 사람들 이 많아서 굉장히 조심하게 돼요. (청년 U)

1인 가구 여성의 경우 남성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남성들은 오히려 위험한 존재로 받아들여지며, 그들과 마 주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 치안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거리두기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이 남자가 많아서 친해지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청년 P)

옆에 누가 사는지는 알지만 이웃이라고 느끼지는 않아요. (저에게) 해가 갈지 안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떤 사람이 살지 모른다는 불안감만 많아져요. 이사하고 나면 강아지가 짖을 수 있다고 문고리에 걸어둬요. 이해 부탁한다고. 성별 유추 못하도록 자필로 안 적고 무조건 프린트하고. (청년 H)

④ 도움조차 부담스러운 존재

이웃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언젠가는 보답해야 한다는 압박이 들기도 한다. 당근만남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로 합의된 상태에서 욕구가 맞았기 때문에 부담이 없지만, 이웃의 도움은 한쪽이 희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왠지 모를 미안함이 남는다.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도움받은 이후로도 마주칠 때마다 신경을 써야 하는 점도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였다.

옆집에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 없이 내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원하는 사람이 일을 도와 주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청년 C)

도움을 부탁하면 해주시긴 할 텐데, 무언가 귀찮아질 것 같아서. 돈을 주고 해결하는 게 깔끔한 것 같아요. 인사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의 관계는 피곤한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데 집이 노출되는 게 싫어요. (청년 J)

⑤ 시대적 변화로 인한 친밀감 표현의 의미 변화

현대에는 상대에 대한 호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호의를 가장해 범죄를 일으키는 사례도 기사화되기 때문이다. 인접한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

지금 세대는 사는 것도 팍팍해졌고, 누군가에게 여유를 내준다는 것이 어렵죠. 예전에는 아저씨들이 아기들 엉덩이 만지면 잘한다 했지만 지금은 성추행이 되잖아요. 이제 이웃이 라는 개념은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청년 E)

예전에는 택배 냉장도 해줬지만, 요즘은 절도로 신고하는 세상이라. (청년 H)

⑥ 서울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1인 가구 독립 후 느끼는 이웃의 부재

경기도 및 지방 도시에 거주할 때는 비교적 이웃들과 인사도 하며 교류가 있었다고 회고 하면서, 인접한 이웃과의 인간적인 관계가 사라진 이유가 '서울'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본가에서도 본인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주되게 이웃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본인의 '1인 가구 독립' 또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이해한다. 즉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지역을 떠나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어머니와 같은 가정 내 핵심 인물을 통한 소극적 소통 정도에 그친다고 볼 수 있다.

부산 살 때는 인사하고 지내지 않았던 사람들도 같은 아파트에 살면 이웃이라고 생각했어 요. 아래층 아주머니랑 알고 지내기도 했고요. 엄마랑 할머니가 서로 알고 지내고 교류하고 있어서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울에 오니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가족의 유무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청년 R)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평택 살 때는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바로 옆집에 할머니가 사셨어요. 가끔 만나면 얘기도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도 나누고. 택배 기사도 얼굴을 알고요. 음식점에서 밥 먹을 때도 인사하고, 부동산 아주머니하고도 친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서울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서울은 벽이 느껴지는 부분이 강해요.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경우는 전주에 살았었는데, 인사하는 게 너무 당연했대요. 버스 탈 때도 인사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인사한다고 했어요. (청년 L)

(2) 소통의 의지와 가능성

① 소통의 의지가 있으나, 다가가기 어려움

인접한 이웃과 가깝게 지낼 의향이 있냐는 물음에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특히 이웃이 청년인 경우 상대방이 원치 않거나 불편해할 것이라는 생각에 선뜻 다가가 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비교적 중장년 및 노년층은 잘 모르는 사이라도 스스럼없이 열린 태도를 취할 것 같다고 느끼지만, 청년 이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청년 본인들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오는 것이 당황스럽고 불편하기 때문은 아닐까. 낯선 동네의 배경을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본능이 작동 중이기에 자신 또한 상대에게 불편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닐까 유추해본다.

가까이 있는 이웃과 친해지고 싶긴 한데 저 사람은 불편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해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벽이 있는 관계가 편할 수도 있는데... 더 가까이 다가가면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조심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요. (청년 L)

만약 집 주변에 내 또래가 산다면 그분과 인사를 하게 되거나, 친했을까 생각해보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접점이 있으면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인사하면 상대방도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오지랖이 넓은 편이시니까 편안하게 인사하시는데, 젊은 층에서는 상대 방이 무서워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안 하는 편이예요. 접점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청년 Q)

② 먼저 배려하며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열린 태도를 취함

인접한 이웃의 존재를 완벽히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다가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여는 모습도 보인다. 한 연구 참여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주인은 중년 남성인데 같은 건물에 살면서 부지런히 환경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성탄절, 부처님 오신 날 등 일 년의 주요 행사가 있는 날이면 나름의 선물을 준비한다. 사생활에 깊숙이 다가오지는 않지만 적당히 배려하는 한결같은 모습에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집주인이 같은 건물에 가족이랑 같이 사는데,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마다 세입자들에게 선물을 돌리세요. 부처님 오신 날은 계단에 다과상을 덮어놓으시고 '편하게 드세요'라고 써 놓으시구요. 뭔가 큰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청년 P)

③ 지발성을 바탕으로 한 이웃을 원함

부모 세대는 인접한 이웃과 관계 맺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했지만 자신은 SNS의 가상 공간을 통해 지리적으로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으면서, 서로 만나고 싶은 의지가 맞물 린 사람들을 이웃으로 알게 되었다고 한다. 즉 부모님이 이웃과 관계 맺으면서 쏟은 노 력이 '주어진 관계 내의 적응'이었다면, 청년들은 '만들어가는 관계 탐색'인 것이다.

부모님은 같은 동네에서도 같은 교회, 같은 종교, 인근에 사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당근마켓이 더 넓은 범위에서 이웃을 만나게 해줬다고 생각해요. 종교 등과 상관없이. (청년 C)

2) 당근만남의 대상을 이웃으로 볼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당근만남을 친구, 직장 동료, 동호회 모임과 비교하면서 차별성을 확인하였다면,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당근만남이 '이웃'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일회성만남이건, 다회성만남이건 간에 당근만남으로만난 사람들이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15명 (71.4%),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6명 (28.5%)이다.

[표 15] 당근만남이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번호	이웃 여부	이유/조건		
		만남에의 욕구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공통의 관심사를 지녔기 때문		
	41041-1	나이는 달라도 옆 고등학교를 나오기도 했기 때문		
1	이웃이다 (15명)	가능하지만 (내향적) 성격으로 인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웃이자 동네 친구이다		
		지속적인 만남/연락을 하면서 도움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관악구에 거주하기 때문		
	이웃이 아니다 (6명)	일회성의 시간을 채워줄 시람이 필요했을 뿐이다		
		관계에 목적성이 없어야 한다 /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만난 사람들		
2		일상을 나눌 수 없다		
	(08)	최소한 누구인지는 알아야 한다		
		오고 가다 만날 확률이 희박하다 (지리적 인접성이 떨어진다)		

당근만남이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한 청년 중 많은 비율이 '만나고자 하는 욕구가 맞아 떨어졌고, 공통의 관심사를 지녔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기본적으로 거주지 인근의 사람들을 만났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리적 인접성의 개념을 넘어 원하는 바가 비슷한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칭하였다.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과는 대화거리가 생기고, 친밀감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근알바로 만난 친구는 동네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친밀감이 공유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만 되어도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청년 R)

현재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강아지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이예요... 물리적으로 가깝다고 해도 성향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통 관심 분모가 없으면 옆집 사람과도절대 소통하지 않아요. (청년 H)

이직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도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관악구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살만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래가는 모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M)

당근마켓에서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일시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이웃은 맞지만, 실질적인 이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청년 U)

3) 당근 이웃과 도움 주고받기

1인 가구로 생활하면서는 같은 건물에 인접한 이웃과는 도움을 주고받은 경험이 전무했다. 다만 어린 시절의 이웃과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이웃인 친구 집에 놀러가거나, 식사대접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대신 당근만남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았던 경험을 이야기 하였다. 본인이 집을 비웠을 때 대신 물건을 받아주거나 집 안에 들어가 상태를 봐주기, 동네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 시 도움받기, 음식 사서 들어가는 길에 나눠주기 등의 사례가 있었다.

[표 16] 이웃에게 도움을 주거나 받았던 경험, 희망 사항

번호	내용 P CBO	경험 유무		
1	택배, 신용카드 등 직접 수령해야 하는 물건 받아주기			
2	이사할 때 도와주기 (짐 나르기, 냉장고 음식 보관해주기)			
3	벌레 잡이주기	도와주었거나도		
4	잃어버린 휴대폰 찾는 것 도와주기	움받았던		
5	집 가기 무서울 때 전화하기	경험이 있음		
6	술 마시고 취했을 때 택시 잡아주기			
7	먹고 싶은 음식 사서 갖다주기			
8	에어컨이나 불 켜고 나온 것 같을 때 확인해주기	하마 나하		
9	이프게나 다쳤을 때 도움받기 (실질적 도움, 병원 정보 등) 희망 사항			

4) 청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이웃'은

인터뷰를 기반으로 추려낸 이상적인 이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이웃의 정의에 포함된 '지리적으로 가까이에 있어 공간 환경적 공통점이 있는 사람'을 들 수 있었고,이와 유사하게 '필요할 때 바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꼽았다. 이는 지리적 근접성을 토대로

하되, 생활 패턴이 비슷하거나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함께 하는 시간 동안 위로를 받거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등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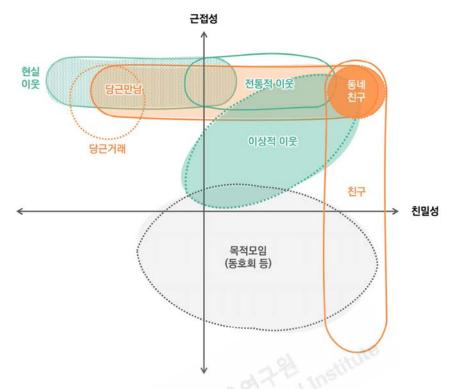
[표 17] 청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이웃'

번호	내용	분류
1	관악구(같은 동)에 사는 성격 좋은 사람	지리적 근접성
2	비슷한 환경의 사람	
3	함께 공유하는 공간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4	힘들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근방에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필요 시 - 바로 만나 - 감정 공유
5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불이 났을 때 등)	
6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바로 만날 수 있는 사람	
7	배울 것이 있고 상담받을 수 있는 사람/어른	
8	부르면 금방 나올 수 있는 장소적, 시간적인 제약이 적은 사람	
9	시간 나면 커피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	
10	개인의 고착화된 루틴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친밀하게 지내는 사이	- 사생활 - 보호 가능한 - 거리감
11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는/존중받는 거리감의 관계	
12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만나는 '모르는' 관계	
13	인사만 하고 지내는 관계	
14	친구같이 취미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이 잘 되는 사람	취미생활 공유

한편 가까이 살면 좋지만 건물 내에 인접한 경우보다는 적당히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거리감의 사람을 원하고 있다. 인접한 이웃과는 가벼운 눈인사 정도가 적당하고 그 이상 청년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 '동네'라고 인식하는 범위와 '이웃'의 범주에 드는 물리적 거리감이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대체로 지하철 1~2 정거장, 걸어서 15~20분 이내의 공간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18] '우리 동네'라고 인식하는 공간적 범위

번호	범위	비고
1	관악구	_
2	관악구 00동	본인 거주 동
3	언덕을 넘지 않는 곳	지형으로 인한 인식
4	따름이를 타고 갈 수 있는 범위	
5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범위 (서울대입구-낙성대)	
6	걸어서 15~20분 이내	_
7	지하철 1~2개 정도	
8	서울 이내 (중랑구, 성동구 등은 제외)	



* 인터뷰를 기반으로 연구자가 단순화하여 임의 표기

[그림 9] 친밀도와 근접성을 축으로 한 관계 개념도 (이웃/친구/목적모임)

6_소결

청년들의 생애 주기별 특성으로 일과 전문성을 위한 성장 및 도약과 관계적 확장기라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본가와 떨어져 1인 가구로 독립한 청년의 경우 생계에 대한 부담과 낯선 곳에서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 또한 내재한다. 그러다 보니 주되게 쏟아야 하는 에너지 이외의 활동과 관계 앞에서 '귀찮음'이라는 감정이 대두된다. 잠깐의 시간적 여유 속에서 최소한의 에너지와 경비를 들여 외로움과 심심함을 충족하려는 태도는 일회성의 당근만남으로 해소한다. 그러나 반복되는 휘발성 만남은 때로 외로움과 허무함의 감정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이 과정을 '악순환'이라고 명명하면서도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를 온전히 내려놓기는 쉽지 않다.

당근만남으로 거주지 인근에 살면서 자신과 취향이 비슷하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을 찾는다면 필요할 때에 시간을 맞춰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동네에서 겪는 갈등 상황이나 개인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만나다가도 잘 맞지 않다 싶으면 관계를 정리할 수 있고, 강제적으로 구속되는 느낌도 없다. 관계 맺는 대상과 지속 여부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비교적 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내 당근만남은 매력적이다.

그러나 청년들은 주부들이 자녀 학령기가 비슷한 동네 학부모들과 관계를 맺는 것처럼 확실하고 강력한 동기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개개인 모두가 서로 다른 취향과 성격,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원하는 사람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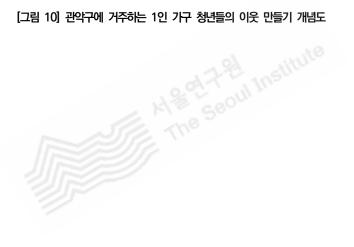
돌이켜보면 청년들이 독립하기 전에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과 깊은 관계를 맺은 경험은 거의 없다. 이웃 관계가 돈독했던 기억은 주로 부모님이 만든 관계에 소속된 것이었다. 관악구에 홀로 독립하면서는 열악한 거주 환경과 안전에 대한 예민함이 더해져 인접한 이웃이 더욱 불편하고 불안한 존재가 된다. 원치 않게 사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으면서도 정작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막연한 타인이 될 뿐이다. 그래서인지 청년들은 '이상적인 이웃'의 공간적 거리감을 새롭게 정의한다. 너무 가깝지 않으면서도 너무 멀지 않은, 밤늦게 만나고 헤어져도 집에 가는 길이 멀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정도말이다.

현대 청년들에게 이웃에 대한 요구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적어도 본 연구에 참여한 21명 중 15명의 청년은 당근만남의 대상을 '이웃'이자 '동네 친구'라고 정의하였다. 서로 도움이 필요하고,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만 확인한다면 얼마든지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동안 청년들은 자신들에게 이웃이 있는지, 필요한지조차 느끼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의 발달로 서로의 욕구를 확인하는 지점에서 지역 내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까이 사는 동네 사람이라는 전통적인 이웃 개념이 아닌 그들만의 이웃을 어렴풋이 그려가고 있는지 모른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다.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와 같은 욕구를 포함해서 말이다. 당근마켓은 우리도 알지 못했던 동네 이웃에 대한 갈증을 영리하게 읽어냈던 것이 아닐까.



[그림 10] 관악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들의 이웃 만들기 개념도



04 청년에게 필요한 '지역 관계' 사업은

1 지역 청년들을 위한 '마을 정책' 현황

서울시 및 자치구의 지역 공동체와 청년 관련 지원 사업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 공공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정책은 크게, 일자리(취업, 창업), 주거, 교육 및 훈련지 원, 생활안정, 참여활동, 복지문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해당 장에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사업 중 1인 청년 가구 커뮤니티와 관련 있는 복지문화 Boul Institute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을 살펴보았다.

1) 서울시 청년정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는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과 진로상담, 그리고 심리적인 부 분을 지워하는 마음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청년센터 오랑을 통해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는데, 본 연구 대상지인 관악에도 서울청년센터 오랑이 위치하고 있다.

또 다른 청년센터인 무중력지대는 서울시가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청년의 활동을 지 원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위해 조성한 공간으로 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다른 청년정책 사업들이 행정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에 비해 무중력지대는 자율성을 중점으로 운영되는 청년센터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공간 지원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 도봉, 성북, 서대문, 영등포, 양천, 대방동, 강남에 7개소가 운영 중이나 올해 말 운영이 종료되어 2023년 서울청년센터 오랑과 통폐합되거나 폐쇄 예정이다. 무중력지 대의 공간은 시간당 5천 원~1만 원 정도 비용으로 모임공간 대여도 가능하여, 대학생과 취업을 위한 수험생들의 이용이 많은 편이며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무중력지대 영등포의 '1인 네트워킹'이나 무중력지대 강남의 '밥 계' 같은 지역 1인 가구 청년들을 서로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거나, 무중력지대 도봉의 '따봉이가 쏜다'와 같이 즉석밥 등 생필품과 도봉 굿즈 키트 구성해 서 배송하는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출처: 무중력지대 https://youth.seoul.go.kr

[그림 11] 무중력지대 네트워킹 포스터 룸

2) 자치구 청년정책

(1) 관악오랑 신림동쓰리룸

관악구는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청년 관련 제도에 적극적인 자치구이다. 청년정책위원회 등 사회참여 사업과 청년사업 및 청년모임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으로 청년의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인 원탁토론회, 신림살롱 등도 개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커뮤니티 사업보다는 사회참여에 가까운 행정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악구에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청년문화지원 사업으로는 2019년 오픈한 관악청년문화 공간 신림동쓰리룸이 있다. '쓰리룸'은 관악구의 고시촌, 원룸에 없는 거실, 서재 등의 기능을 공공영역에서 제공하는 대안공간으로 약 100평 정도 규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관악오랑을 포함하여 취업, 주거, 생활, 심리상담 등 청년정책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일자리(취업 및 창업)와 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4)

⁴⁾ 관악구의 신림동쓰라룸은 2020년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관악구 청년고용율을 55%(2022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로 높이는 데 일조하였다고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1인 가구 청년의 삶과 다양성에 대한 커뮤니티, 소통, 교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미술심리, 글쓰기 마음체조 등 청년들의 심리상담이, 비정기적으로 걷기, 등산 등 야외활동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그러나 5~6명의 인원 제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신림동 고시촌에 위치하고 있어서 관악의 지역적 특성상 지리적으로 먼 곳에서 이용이 어렵다는 한 계점을 지닌다.

(2) 금천 청춘벨딩

2014년 5월 청년활동공간이 제안된 데 이어 2015년 5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독산 3동 청소년독서실 기능 전환사업'으로 탄생한 청년공간이다. 청년들이 직접 지역의 유휴 공간을 찾고, 조성 예산을 확보하며, 정책을 설계한 거버넌스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청춘삘딩의 대표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청년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하는 '모두 잇다(두 잇)',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일환의 '청삘 반상회', 비정기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급모임을 추진하는 '얼렁뚱땅 살롱'이 있다. 이 외에도 금속공예나, 그림책 등 체험수업도 마련돼 있으며, 주변 지역의 공방과도 연계해서 홍보 및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청춘 삘딩은 특징 중 하나는 '포인트 제도'이다. 청춘삘딩 분양권을 발급받은 이용자가 공간 및 프로그램 이용 시 각 항목별로 포인트를 책정해 적립하는 제도인데, 연말 공유회에서 현금처럼 다양한 굿즈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청춘벨딩이 좋은 사례로 손꼽히는 이유는 청년들의 요구를 잘 파악한 프로그램의 운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장점은 살리고, 청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연결의 구속, 복잡함은 덜어내었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이다.

(3) 은평 청년 새싹공간

은평구에서는 2017년 12월 개관한 '은평 청년 새싹공간'은 통일로와 불광로에서 2개소를 운영한다. 청년 새싹공간은 창업지원, 공유식탁 등 다양한 청년 간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월 1회 1인 가구 청년들이 토요일 점심에 요리 및식사를 통 교류하는 '토요시식회'가 있고, 월 1회 청년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식사를 하며 교류 및 사업발굴을 하는 '알음알음 날'이 있다. 또한, 은평구의 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새싹점포 등으로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4) 성북 청년공간

2019년 성북 청년들의 제안으로 2020년 3월 말에 성북 청년공간이 만들어졌다.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연습실, 스터디룸, 갤러리 등이 있다. 공간대여중심으로 운영되며 성북청년 모임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성북구에는 이 외에도 동선동에 위치한 '무중력지대 성북', 길음동에 위치한 '청년공간 길이음', 정릉동에 위치한 '청년살이발전소'와 같은 청년공간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청년들의 주 이용지역에서 벗어나 거주하다 보니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한계점 또한 지니고 있다.

3) 정책 제안 방향

본 연구에서 다루는 '청년들의 이웃'은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공동체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모이는 정책적인 의미의 커뮤니티 보다는 '이웃'처럼 사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미 청년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에 대한 제도는 비교적 선순위로 인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한 정책과는 별개로 청년이 즐겁게 놀면서 소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에는 어떤 성과가 있냐고 되물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시선에서 보았을 때 이는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한 세대의 사회적 건강함과 타인에 대한 이해, 배려를 진작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원이다. 서울시 청년센터 성과를 분석한 정세정 외(2021)에서도 청년정책의 확장 및 고도화 과정에서 복잡다단한 청년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울형 청년정책의 '리포지셔닝 (re-positioning, 기능 전환 또는 확대)'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과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청년은 어떤 모습인가?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되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청년들이 SNS를 통해 이웃을 만나는 이유는 본인의 삶에 방해되지않는 선에서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기 때문이다.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혼자 남겨지고 싶지는 않은, 통제받고 싶지는 않지만 연결되고 싶은, 그러나 아무나 쉽게 믿기는 어려운 양가적 태도가 공존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했을 때보다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구체적인 제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 실행의 방향성을 짚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청년 정책을 바라 보는 태도에 대한 것이며, 세 번째는 그들의 접근을 환영하는 방식의 정책인지를 논하는 것이다.

[내용] 신뢰를 바탕으로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 청년 네트워크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되어 새로운 교류를 형성하는 초연결사회의 필수조건은 '신뢰 네트워크'이다(김원호 외, 2020). 특히 이웃 간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이웃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주거 이동 의향이 낮고, 이동을 하더라도 동일 생활권을 선택할 의향이 높기 때문이다(박병훈&정의철, 2022).

본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은 대면으로 만나게 될 낯선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를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여성들은 남성에 대한 안전 위협에 특히 민감했다. 이에 청년 끼리 서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인증제도 등 상대방의 신원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의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태도] 성과를 내기 위한 정책사업이 아닌 청년들의 성장 과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청년센터에서 지원하는 정책사업들이 대부분 취업과 창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취준생이 아닌 청년들이 정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과연 그들을 회사에 소속된 청년과 그렇지 않은 준비기의 청년으로만 나눌 수 있을까? 학업을 준비하는 청년, 몸이 아파 일을 쉬고 있는 청년, 단기 아르바이트직을 하고 있는 청년들은 결코적은 비율이 아니다. 그들을 엮어줄 정책이나 관계망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청년은 이미 법적 성인으로 누군가의 보육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성인으로서 홀로서 기하는 과정에 놓여있다.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결혼 적령기가 늦춰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는 추세이다. 특히나 한국의 경우 20세 초중반 혹은 그 이후가 되어서 야 경제활동을 시작하며 독립된 주체로 생활한다.

이러한 사회 모습을 반영하듯 청년을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으로 예비 졸업생, 취준생, 사회 초년생, 산업예비군 등이 있음을 감안하면 꽤 많은 1인 가구 청년들은 명확하게 본인의 사회적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워할는지 모른다. 아마도 학생과 직장인 사이 범주의 어디쯤 위치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애매한 지위에서 한 단계 나아 가려고 발버둥치는 청년기를 이해하고 당장 눈앞의 성과를 수치로 확인하는 태도 보다는 성장의 지지대를 마련함으로써 독립된 개체로서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서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접근성] 청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다수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공공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첫 번째 이유는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혜택을 받기 위한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우며 특히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에게는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다. 세 번째 요인은 정책에서 제시하는 청년 모임의 형태가 유연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터뷰 대상자였던 청년들은 관악구에서 어떤 프로그램과 공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관악구의 소식을 전하는 채팅방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양하게 접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 대부분은 채팅방의 유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취업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지만 본격적 인 행정 업무가 과도하게 느껴지며, 사회 초년생으로 소속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청년복지 정책은 그 자체로 미흡하다. 인터뷰에 의하면 서류와 같은 행정 절차로 공무원이 근무하는 낮 시간대에 청사를 방문해야 하는 일이 잦다고 한다. 아무리 자유롭게 시간을 낼 수 있는 청년이라도 하루의 중간에 업무를 보러 이동하는 것 자체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는 본래의 목적보다 행정이 우선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안현찬과 구아영(2017)의 연구에서 제시한 공공의 지원기준 중 간접 지원, 그중에서도 자율성을 제공하는 방식5)의 정책지원 또한 필요하다. 현재 공공에서 지원하는 정책사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대다수의 공동체 지원사업을 위한 자격요건은 모임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공동의 목표 의식을 가졌다는 전제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임 중 어딘가에 소속되어 주어진 역할을 소화해내는 정기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하나의 직업처럼 청년들의 생활 속에 깊게들어와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한 1인 가구 청년은 현재 공공에서 요구하는 조직적인 활동을 원하는 청년 유형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공공에서 지원하는 정책사업은 보다 가볍게 다양한 유형의 모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하기 어렵다. 물론 공공에서 이러한 수요를 모두 해결할 수 없지만, 적어도 행정적으로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진정으로 청년들의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을 중심으로 장·단기적 차원에서 청년들의 관계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⁵⁾ 안현찬과 구아영(2017)은 공공 지원을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나누고, 간접 지원을 다시 세 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고민해보고자 한다. 행정적으로 풀어야 하는 숙제 혹은 청년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부분은 잠시 내려놓고, 구체적인 사업 중심으로 '신뢰&안전', '관계', '공간'의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2 단기적 대안

1) 신뢰&안전 : 이웃 청년과 건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안전장치

청년들은 당근마켓을 통해 새롭게 소통할 대상을 찾으면서도 낯선 누군가를 경계하고, 채팅 기능을 통해 상대를 파악하는 등 기본적인 필터링 장치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즉 이웃과 건전하고 안전하게 소통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민간활동으로 '꾸러기수비대'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2018년부터 시작된 꾸러기수비대는 2022년부터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대문구, 강서구 등 지역을 확대하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과 동네 애착을 갖게 하는 좋은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가 잘 정착되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데 공공의 역할이 백분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공공에서는 개인 신상에 대한 신뢰도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이다.

(1) 꾸러기수비대와 같은 지역 안전 프로그램

현재 관악에서는 2018년부터 '꾸러기수비대'라는 2030 청년 방범 활동을 5년째 지속해 오고 있다. 꾸러기수비대는 공공이 아닌 문화기획사 '아야어여'(대표:장화신)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동네 한 바퀴 돌고 밥 먹고 놀자'라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마을의 문제를 청년들이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과정과 함께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이며 봉사활동 모임이다.

관악구 꾸러기수비대의 주 활동은 자율 방범 활동으로 주 1회 2시간씩 조별로 담당 지역을 돌면서 범죄 예방 활동, 보안등, 도로 파손, 쓰레기 무단투기 등 지역의 안전을 적발하고 해결한다. 지역 봉사활동과 함께 취미를 공유하고 생활적인 고민을 나누고, 활동후에는 함께 밥을 먹으며 친목을 도모하는 민간 조직이다. 매주 다른 조를 편성하여 서

로 얼굴을 익히고 교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단순 방범 활동과 차이가 있으며, 평소에 가보지 못한 이웃 동네 구석구석 방문하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 또한 증가할 수 있다.

민간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 꼭 지역 거주자로 한정되지 않고 지역 내 직장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방문하는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활동 가능한 날에 선택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활동 외에도 이사를 도와주거나 필요 시 거주지 안전을 돌봐주는 번개 방범 활동으로 확장되었으며, 공구 활용 방법을 알려주는 등 다른 프로그램도 함께 연계하여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이때 공공에서는 보다 통합적인 환경·공간관리의 시점에서 상위 개념의 차별화된 활동을 기획할 수 있다. 협치를 통해 규모의 확장 혹은 세분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실제 범죄 데이터 일부를 제공하여 특별 순찰 지구를 지정하는 등 상생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것이다.

2) 관계: 새로운 동네에서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만남의 접점 제공하기

본 연구에서 주목한 1인 가구 청년들은 SNS를 통해 누군가와 소통하고자 하는 주변과의 연결에 적극적인 청년이다. 이들은 고립이 아닌 독립을 원한다. 자신들이 삶을 중심으로 관계의 주체가 되는 소통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좋은 이웃', '이웃의 정'을 떠올릴 수 있는 크고 작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신규 전입 청년들을 위한 정착 프로그램 '웰컴 키트(Welcome Kit)'

청년들이 공공 지원 정책을 누리기 이전, 최초 진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김성아 외 (2021)에서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고시촌 거주 1인 가구의 상당수가 사회적 고립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소극적이며 공공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최초 진입 경로와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기헌 외 (2020)에서 유스 박스(youth box) 보급으로 청년 전환기의 건강복지를 제안한 것과 같이 서울에서는 타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청년들을 위해 추첨을 통해 웰컴 박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악구 및 지자체에서도 전입한 1인 가구 청년에게 집 주변의생활편의 정보와 청년정책을 홍보하는 단계를 거치기를 제안한다.

마트나 병원, 세탁소 등 주변의 기초적인 지역 생활 정보는 주민들이 만드는 온라인 지

도 매핑으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센터나 도서관, 보건소 등 공공기관 정보, 관악구 내 채팅방 소개 등의 정보를 담은 '월컴 키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온라인 지도 등을 위해 신규 채널을 만들거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기존에 청년들이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 시스템과의 MOU 체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해당 지역으로 이주 시 자발적으로 가입 및 참여를 유도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을수 있도록 청년정책사업 홍보 및 만남의 단초를 제시한다.

(2) 지역 내 관계성 회복 프로그램 '함께하는 엄마 주방'

청년 인터뷰에 의하면 이웃 어른과 당근 거래를 하면서 이웃의 정을 느낀 경험이 많았다. 그 외에 지역 내에 롤모델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소통이 잘 되는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라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비록 청년들이 선택하는 동네에서의 만남은 '또래 중심'이지만 지금처럼 그들의 기호에 맞는 관계에만 국한되면 다양한 연령대와의 만남을 통해 경험하는 관계적 풍요로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 때로는 인생의 선배로부터 고민 해결의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세대 간의 갈등과 몰이해가 줄어들 것이다.

이에 지역 상권에 기반을 둔 어른들의 재능기부로 청년과 소통하는 '함께하는 엄마 주방'을 제안한다. '함께하는 엄마 주방'은 해당 지역의 요식업에 계신 분들의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으로 공공 공유주방에서 저녁에 밥과 국을 제공하고, 하루 일과를 마친 청년들이 편하게 방문하여 저녁을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재능기부를 해주시는 '동네 엄마'에게 공공에서 재료비 등 소정의 비용을 지원하고, 상점에서는 미처 다 팔지 못한 음식 또는 남은 식재료를 활용하여 맛있는 음식을 청년 이웃과 나누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통해 지역 청년들은 맛있는 음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으며, 부모와 같은 어른의 부재를 조금이나마 메울 수 있을지 모른다. 또한 상점에서 매일 처리하지 못하는 아까운 식재료들이 음식물쓰레기가 되는 사태를 줄일 수 있다.

3) 공간 : 자율적으로 언제나 이용 가능한 공간

현재 청년을 위한 공간들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오랑, 무중력지대 등과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은평 새싹공간, 금천 청춘빌딩, 관악 신림동쓰리룸 외에도 공공기관(주민센터, 문화센터 등)의 유휴공간 대여 및 제공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1) 기존 공간지원 정책사업의 유연한 운영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무중력지대는 많은 청년들의 호응을 얻었다. 멤버쉽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비구속적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다. 또한 무료로 사용할수 있게 하여 경제적 여유가 없는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이런 점이 바로 '자율성이 보장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한 청년들의 참여율이 높은 배경이다. 공식적인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없는 날에도 자율적으로 소모임을 하거나 취미활동을 함께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전에 신청한 사람들만 공간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행정지원사업의 한계로 판단된다.

인터뷰에 응한 청년들 중 공공에서 지원하는 청년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이용 시간의 제약, 사전 예약 시스템, 이용하고 싶은 시간(주말 또는 야간)의 이용 불가 등이라고 답변하였다. 공공에 사전에 허락을 구하고 사용하는 것은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사전에 이용계획이 명확할 때만 가능하다. 즉, 당일에 모임을 기획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설 카페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관악구에 거주하는 1인 청년들의 경우 저렴한 거주 임대를 위해 찾아온 만큼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소한 지출 또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기존 공간 운영방식의 변화를 제안한다. 청년들이 필요할 때 공공에서 운영하는 안전한 공유 키친을 활용하거나, 동네 친구와 함께 공부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일부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전 예약 없이도 공간이 비어있는 경우 바로 대여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과 24시간 공간 이용이 가능한 파격적인 공간지원이 필요하다.

3 중장기적 대안

1) 신뢰&안전 : 신뢰를 위한 크고 작은 장치의 마련

(1) 안전한 1인 가구 주거지 인증

1인 청년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밀집 지역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거주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의 인증제 도입을 통해 청년, 특히 여성 청년들이 좀 더 안전한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다. 공공의 입장에서는 지역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지역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들이 스스로 건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해당 사항을 공공에서 검수하여 별점제와 같이 안전한 주거지를 인증하는 제도를 고민해 볼 수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들이 번거롭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치구 차원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인증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궁극적으로는 거주지 주변의 안전 환경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 세입자 관리나 안전 이슈, 임차인으로서의고민 등을 함께 나누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건물주 중심 모임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선순환 방식으로 안전한 지역을 만들수 있고, 안전한 관악구라는 이미지 또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2) 관계: 지역 기반의 자발적 커뮤니티 활성화

(1) 신규 전입 청년들의 재능기부 '도움 주고받기'

앞서 단기적 방안에서 관악구로의 전입 시 웰컴키트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이때 자신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QR코드 링크를 제시하여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잘하는 것, 도움 줄 수 있는 것 등을 기입하도록 한다. 이는 후에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있을 때 매칭을 도울 수 있는 '도움 주고받기'의 데이터가 된다. 본인이 도와줄수 있는 항목과 요일 및 시간대를 표기하면 응답을 바탕으로 공공에서 리스트를 관리하거나 또는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해주는 방식으로 공공이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당근마켓의 '해주세요' 채널에서 청년들이 우려하는 '신뢰'의 측면을 보완해 안전을 확보하는 지역 관계망을 구축해볼 수 있다.

자차가 있는 경우 가벼운 이삿짐을 나를 때 이동을 돕는다거나, 미적 감각이 있는 청년 이 이사 온 청년의 집을 꾸미는 것을 돕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 냉장 또는 냉동보관이 필요한 택배를 대신 받아주는 것, 반려동물을 잠시 맡아주는 것 등 생활 속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재능 나눔이 된다. 이러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공공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특정 연령대 혹은 성별을 고려하여 매칭해주거나 기본적인 신원이 확인된 청년을 연결한다. 도움을 주고받은 후, 도움을 준 청년과 받은 청년모두가 해당 업무를 잘 마쳤는지 확인하는 온라인 '안심 체크' 기능을 선택하면 제3의 눈을 통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본인이 원하면 당근마켓의 '온도' 기능처럼 봉사 또는 재능 기부 횟수나 친절함 등의 별점을 다른 청년들도 확인할 수 있게 해 서로가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유도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온라인을 통해

상대방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청년 교류가 오프라인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구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2) (전입) 청년 커뮤니티 형성 프로그램 '청년 웰컴파티'

지역 전입 시기에 따라 기수를 구분하고 기수별 커뮤니티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전입 시기에 따라 필요한 내용과 단계가 변하는데 대체로 초기에는 생활을 위한 지역 생활 정보가 필요하고, 점차 개인의 요구에 맞는 지역 정보나 커뮤니티를 탐색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같은 시기에 전입한 청년끼리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른 시기에 입주한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통해 필요한 정보도 교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수별) 청년 파티를 제안한다. 분기별, 또는 연차별로 공공 운영 공간에서 시행하면 자연스럽게 공간 홍보도 가능할 것이다. 연말이나 특별한 연휴에는 앞 기수들과 다함께 만날 수 있는 대규모 파티를기획할 수도 있다. 마치 학교나 회사에서 신입생 또는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여 필수 정보를 제공하고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이사 온 청년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존에 거주하던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주어 자발적으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당근만남에서 그랬듯 네트워킹을 통해 그들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통된 관심사를 찾는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다.인접한 지역에 사는 청년 이웃들과의 환경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크고 작은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초기의오픈된 만남을 공공에서 마련한다.이때 기수나 특정 모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청년리더를 양성하여일부 모임의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속성 혹은 운영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전반적인 활동 과정에서 청년들이 처한 사회적 배경의 정보를 유형화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그룹이 있지는 않은지, 정책의 공급이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관의 승인 아래서 청년이 모임을 구성하여 스스로가 소속 또는 지위를 만들어보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라벨링(labeling)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도움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함께하는 엄마 주방'에서 멘토-멘티 관계로 발전

단기적 정책 제안을 통해 '함께하는 엄마 주방'을 제안하였다. 본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요일별 또는 계절별 별도의 저녁 식사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청

년들의 심리적·정신적 고민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상담 치료를 받는다는 이미지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지역 상담사가 식사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다. 밥을 먹는 시간 혹은 그이후에 가볍게 고민거리를 공유하고 이야기하면서 시각을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문제를 해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한다. 전문 상담사 외에도 공공의 확인을 거친 멘토 혹은 또래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대상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등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저녁 식사 외에도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함께 김장해서 나눠 먹기, 마른반찬 함께 만들기 등 1인 가구를 위한 쿠킹 클래스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다. 김장 등 시즌 프로그램에서 는 지역의 1인 독거노인 집에 음식을 나누는 등 더 확장된 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공간 : 안전하고 지발적이며, 지속적 운영을 위한 공간적 인프라 지원

본 연구에서 만난 청년들은 특별한 목적성 없이 같이 산책하면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은 활동의 배경이 되는 공간 측면에서 새로운 청년들 간의 만남이 안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모임공간과 오픈스페이스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내에서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다양한 오픈스페이스를 발굴하고, 공원 및 녹지 등을 연결하여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야하다.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1인 청년 가구의 동네에서의 활동적 수요는 매우 높다. 그러나 관악구는 개별의 오래된 단독 건물들과 높은 경사, 유흥 업소들의 홍보물 등으로 외부환경 여건이 쾌적하지 않다. 1인 가구의 주거지는 대부분 대형 아파트 단지가 아닌 좁은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다. 건축물이나 상점들의 입주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공에서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활동 공간과 산책로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 산책 코스는 경찰 순찰자나 지역 방범 수비대가 특별히 순찰을 강화한다거나, 안심벨이 설치된 공간 정보를 알려주고, 반려동물과 함께 가기 좋은 곳 등을 온라인 지도로 제공할 수 있다.

한 단계 높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기존의 오픈스페이스를 기반으로 보행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그린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청년'의 정성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고 정량적인 변화를 위한 정책만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

"청년정책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계속 생기는데 원래 행정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사고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서복경 외, 2017)라는 말처럼 청년들의 특성과 요구는 다양하다.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청년들은 소속감과 안정감은 있지만 자율성이 보장되는 유연한 관계, 각자의 스케줄에 맞춰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들과원하는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원한다. 이웃 관계도 자발성에 기초한 그들만의 거리와방식을 따른다. 비교해보자면 주부들은 대체로 자녀의 학령기에 따라 이웃 관계가 형성되지만, 청년들은 이와 같은 별도의 매개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자의 관심사와 배경, 삶의 사이클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인 가구 청년들에게 과연공공 주도의 행정 편의적인 정책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지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앞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했지만 그것이 정답이 아니며 모두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율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청년정책을 공공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때는 예상치 못한 많은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청년정책의 경우 지역기반의 민간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김성하 외, 2021). 아야어여의 '꾸러기수비대'처럼 민간이 공공보다 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관 협력보다 민간 협치의 차원을 고려하여 공공이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김기헌(2022)에 의하면 지자체 청년센터 중 민간 위탁 비율은 61.6%이고, 민간 위탁 방식 또한 상하 관계로 이루어져 하청과 비슷한 구조로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년 자치공간을 마련할 경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에서는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초기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관에서 주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연결, 검증된 방식의 청년 관련 데이터 구축을 통해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관계 맺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꾸준한 지원은 국가적 미래의 건강한 기반으로도 연결될 것이다.

05 결론

인생의 본격적인 홀로서기를 위한 준비 기간이자 이행(transition) 단계를 겪는 관악구의 1인 가구 청년들은 그 어느 집단에도 소속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함께 해당 연령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1인 가구 청년들은 스스로 꾸린 가정 없이 결혼한 친구들과의 모임, 본가, 사회생활로부터도 괴리되어 있는 애매한 단계를 지낸다. 생활적 안정을 위해 '거쳐 가는 일시적 공간'에 불과한 관악구에서 청년들은 부유하는 듯한 감정을 느낀다. 사회적 기준에서 무엇이라 정의 내리기 어려운 시기와 공간 속에서 문득 고개를 내미는 외로움을 덜어내기 위해 이웃을, 동네 친구를 만난다. 이는 새로운 곳에 뿌리 내리고 현재를 살아내기 위한 생애적 과정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록 질 높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시행착오의 과정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당근만남이 주는 관계적 효용을 백분 활용하기도 한다. 모든 관계가 그렇듯 연결고리가 미약해 보이는 이 관계 또한 가족 또는 친구와는 또 다른 의미와 가치를 지난다.

동네의 수많은 사람들 중 특정인을 선별하고,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반복할 수 있게 하는 데에는 SNS의 역할이 크다. 이는 초기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자본과 온라인 플랫폼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점과 일치한다. 현대 도시에서 잃어버린 이웃과 공동체를 되찾고자 한다면 온라인 플랫폼을 관계를 잇는 도구로 활용할 수있다. 새로운 기술과 정보 통신의 도래를 피할 수 없다면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버드 대학의 제임스 파울러와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 교수 팀이 네트워크 관련 연구로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다. 관계를 통한 행복 연구 중 중요한 전제 조건은 만남의 양보다 질-몇명의 '진짜 친구'-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만나는 사람들보다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한국 사회의 전통적 이웃 공동체는 스스로 선택한 관계는 아니었다.

그 속에서 끈끈한 이웃의 정을 느끼고 정서적 안정을 취했을지 모르지만 생활 반경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관악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들은 SNS를 통해 스스로 이웃을 만들어간다. 사생활의 자유로움을 보장받으면서도 근거리에서 의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네트워크인셈이다. 적당한 물리적 거리를 두면서도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고자 하는 특성은 청년 1인 가구가 원하는 이상적인 이웃의 특징이다. 부모, 고향 친구들과 떨어져 홀로서기를 시작한 청년들에게는 소중한 안전망이자 지역 정보망, 서울에서 만나는 새로운 친구이기도 하다.

"만약 우리 사회의 고독감과 맞서 싸우고자 한다면,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그들의 소셜 네트워크를 복구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을 도움으로써 고독감에 대한 보호 장벽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은 전체 네트워크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Connected 중에서-"

지역 내에서 크고 작은 관계를, 때로는 서로 다른 연령대와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늘려나가자. 이는 외로운 1인 가구 청년들의 관계 스펙트럼을 넓혀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청년들은 자신과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시행착오 끝에 한층 성장해 있을 것이다. 그러기위해서 '도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의 전이적 생애 단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지역 관계와 뿌리 내림을 사회가 맘껏 응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구선아, 장원호, 2020, 느슨한 사회적 연결을 원하는 취항공동체 증가 현상에 관한 연구, 「인문콘텐츠」, (57), 65-89.

김기헌, 하형석, 신인철, 201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성하, 박민진, 김정아, 2021, 서울시 1인 가구 외로움·사회적 고립실태와 대응전략, 서울연구원 김원호, 김수진, 박민진, 장윤희 2020 초연결사회X전환도시 생활방식의 전환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전환, 서울연구원

김미영, 2015,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공동체의 여러 형식, 「사회와 이론」, 181-218

김용학, 2004, 「사회 연결망 이론 (개정판)」, 서울: 박영사.

김이현, 김지범, 강정한, 2020, 서울시 행정구역과 이웃 효과 관계 탐색,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및 행정 자료 연계 조사연구」, 21(2), 1-23.

김재영, 2021, 초연결성은 어떻게 지역성과 만나나?: '당근마켓'사례를 통한 탐색적 시론, 「한국언론정 보학보」, 108, 7-29.

김종기, 김진성, 뢰정첩, 201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정보시스템연구」, 21(3), 163-186

노리나 허츠, 2021, 「고립의 시대」. 웅진지식하우스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 제임스 파울러, 2018, 「Connected (행복은 전염된다)」, 이충호 옮김, 김영사 박병훈, 정의철, 2021, 이웃과의 관계 만족도가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동산연구」, 31, 7-28.

박상아, 박수정, 김연주, 2019, "청년은 왜 공동체를 누리지 못하는가: 독거청년의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 형성을 위한 공동체 정책 제언", 서울연구원.

변미리, 2016, 서울의 4種 4色 1 인 가구, 대세로 자리 잡다.

서복경, 신윤정, 엄창환, 오윤덕, 장수정. (2017) "청년정책 결정 및 집행체계에 대한 경험 연구: 효율성, 참여성, 적합성의 원리에 따른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제안". 서울시 청년허브 안현찬, 구아영, 조윤정. 2019,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정책리포트, 1-21.

양은주, 김지영, 오창식, 차창훈, 최정, 최진실, 김재영, 2021, "동네의 재발견: 하이퍼로컬리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국언론정보학보」, 109, 153-184.

우정균, 2021,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경기연구원.

유영성, 2014, 초연결사회와 우리의 수준. 「이슈 & 진단」, (129), 1-26.

이라영, 신남수, 2009, 공동주택단지의 물리적 환경 구성요소와 거주자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5(3), 235-246.

임정숙, 김고은, 2019,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령집단 간 비교. 「인문사회」 21, 10(3), 1773-1788.

장수지, 김수영, Erika Kobayashi, 2014, 연령집단 별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2), 1-27

정세정, 안수랑, 류진아, 기현주, 2021, 서울형 청년정책 전달체계 성과분석 연구 -서울청년센터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유진, 2014, 이웃 관계의 중요도와 공간적 특성에 관한 실증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존 카치오포, 윌리엄 패트릭. 2013, 「인간은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 민음사.

천현숙, 2001,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거주자 특성과 커뮤니티 특성 간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주 택학회지」, 9(1), 143-173

국무조정실, 2021, 「청년 정책백서」.

최재영, 유수진, 2019, 지리교육에서 심상지도 (mental map)의 활용: 초등 사회과 4학년 단원을 사례로. 「한국지도학회지」, 19(3), 103-116.

황익주. 2016. "왜 한국 도시에서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주목하는가", 「한국의 도시 지역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행정안전부, 2017, 「지역 공동체의 이해와 활성화」.

J. H. Fowler and N. A. Christakis, "Dynamic Spread of Happiness in a Large Social Network: Longitudinal Analysis Over 20 Years in the Framingham Heart Study," British Medical Journal337 (2008):a2338

http://www.law.go.kr/(국가법령정보센터)

http://kosis.kr/(국가통계포털)

http://stat.seoul.go.kr/jsp3/ (서울통계)

https://youth.seoul.go.kr/site/orang/home (서울청년센터 오랑)

https://www.daangn.com/ (당근마켓)

https://pierrebourdieu.tistory.com/18 마누엘 카스텔(Manuel Castells), 정보사회학의 거장

https://youth.seoul.go.kr (무중력지대)

http://www.youthblg.org/ (청춘벨딩)

"벌써 679만명… 당근마켓 '폭풍 성장'" (동아닷컴. 2020. 6.10)

http://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609/101438557/1

"이웃과 중고 거래할 수 있냐고요? 당근이죠!" (Economy Chosen 329호. 2019. 12. 23.)



작은연구 좋은서울 22-05

SNS를 통해 스스로 이웃을 만드는 청년들

발행인 박형수

발행일 2022년 12월 30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